朝鮮日報

今日四面

新聞價 壹個月先金壹圓 參個月先金 貳圓九拾錢 六個月先金 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壹行壹圓 二十五同 特別 四號九字壹行貳圓 ... 號七字壹行參圓 ... 指定料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illegible]元
發行所 京城府水標町四三 朝鮮日報社

社說

華府條約의 批准과 中國의 將來

一

지난 五日米國國務省에서 同國國務卿켈록氏와 英國 日本 佛國 伊太利 白耳義 葡萄牙 和蘭等八個國代表者가 會合하야 中國의 門戶開放과 關稅의 改正에 關한 華盛頓會議의 條約批准寄託을 終了하고 米國代表者켈록氏로부터 即時中國政府에 此意를 通告하야 同條約은 同日로서 即時效力을 發生하게 하고 中國政府로 하야금 三個月以內에 北京에 外國會議召集의 案內狀을 發하기를 要求하엿다 이와가티된 結果關稅特別會議는 來十月十五日頃에 北京에서 開催되리라는데 現下中國의 政情이 混沌狀態에 싸저잇서 同會議가 豫定과 가티 開催되게될는지 아즉 疑心치 아니치 不能한 狀態에 잇는것이 事實이어니와 如何間 이 條約의 批准은 中國의 國際的地位의 向上을 爲하야 實로 重要視되는 問題이니 미리 檢討하여 볼 必要가 잇는 것이다

二

千九百二十二年華府會議에서 中國代表顧維均氏에 依하야 여러가지로 中國의 國際的地位向上에 關한 問題가 主張되엇지마는 그 가온대도 特히 主力을 쏟은 것은 關稅問題이엇다. 關稅는 어느나라를 勿論하고 獨立國家의 財政의 基礎的部分이 되야잇는것은 煩論을 加할 必要가 업는 明白한 事實이어니와 現在中國의 關稅率은 五分인데 이것을 引上하야 一割二分五厘로 하자는 것이 中國側의 主張이엇다 그 理由는 부를것업시 中國自體의 獨立國家로서의 體面問題가 될뿐아니라 中國의 財政的復活을 爲하야 當然한 바이다 그런데 當時의 列國의 態度는 자못 不一樣하엿스나 大槪말하자면 英國은 所謂折衷案인 七分五厘說을 主張하엿고 關稅引上으로 말미아마 直接損害가 多大할 米國日本等은 그 意思의 發表를 廻避하엿섯다 그리하야 問題는 當時에 何等의 決定을 보지 못하고 所謂調査委員會를 組織하야 調査研究한 後決定하기로 하야 今日에 至하야 비로소 基礎條約의 批准을 完了하게 된 것이다

三

이번에 基礎條約의 批准을 促進한 것은 中國의 排外運動에 因由한 것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지마는 何如間 이번에 同條約의 正式批准이 完了되엿슴으로 關稅問題를 討議할 特別會議가 順序대로 開催될 機會에 達한 것이 事實인데 이 會議의 結果는 果然如何할가? 이 問題가 具體化한 今日의 列國의 態度를 一瞥하건대 傳하는 바와 가티 米國은 主催者的地位에 잇는 터이니 關稅會議에 그 範圍를 擴張하게 아니라 中國의 要求하는 바 모든 不平等條約外지라도 討議하기를 贊同할 것은 無疑의 事實이오 英國은 米國과 協調的外交政策을 取하는 것이 當然한 바이나 排英의 氣勢가 終熄치 아니하는 今日에 無條件으로 好意를 表치 아니하는 同時에 勿論今會議의 範圍擴張에 反對할 것이오 日本에 至하야는 利害關係가 가장 密接한 關係에 잇고 또 國際的親善關係를 重要視치 아니치 不能할 矛盾된 地位에 立한만큼 態度를 明示하기 困難한 터이나 不得已 同情的意思를 表示할 것이오 佛國은 大槪其他의 重要한 外交關係에 牽引되야 英國과 步調를 一致히 할 것이 容易히 推測되는 바이다 이와 가티 된 現像임으로 中國이 同會議에 要求하는 바와는 大體上으로 疎隔되야 잇다 할 것이다

四

그럼으로 來十月에 開催될 特別關稅會議의 範圍가 中國의 要求대로 擴張되야 一切의 不平等條約外지를 討議하기 困難할 것은 預想하기 不難한 바이니 中國의 將來를 爲하야 樂觀을 許할 餘地가 업다고 斷言할 수 잇거니와 더욱히 列國으로부터의 要求는 同會議開催前外지 統一된 中央政府의 成立을 要望한다 함에 現下中國의 政情으로 미루어 보면 到底히 그동안에 統一된 政府의 實現이 困難할 것이다 그런데 一步를 讓하야 單純히 關稅問題만을 討議함에 잇서 好結果를 齎來한다 할가? 이것도 또한 疑問이다 關稅引上問題에 잇서 元來中國案 一割二分五厘案은 決코 無理한 要求는 아니다 米國은 三割五分 佛國은 一割五分 英國은 一割二分인 事實에 對照하야 그러치 아니한가 그러나 英國은 感情上으로라도 七分五厘案을 確執할 것이니 利害觀念을 떠나서 中國에 同情하기 爲하야 英國과 抗爭할가 米日英等의 國際的利害關係를 打算하여 보면 大槪中國案이 挫折될 것이 事實일 것이다

五

이와 가티 考察하여 보면 關稅問題만을 專門으로 討議하는 會議의 好結果도 可望업는 바인가 한다 따러 中國은 이번 條約의 批准으로 말미아마 何等顯著한 收穫을 엇지 못할 것이라 斷言할 수 잇다 要컨대 所謂國際舞臺에 잇서 強者의 弱者에 對한 溫情的好意는 弱者를 爲하야 부즐업는 寶恩的行爲에 不過한 것이 忘却치 못할 點이다 그러면 中國問題는 中國人自身이 他力의 干涉에서 完全히 解放될 만한 準備乃至實行이 잇슨 後에 비로소 正態的決定的解決을 보게 될 것이라 함이 妥當할 것이다

移民法改正反對 米勞働黨評議員會決議

(桑港發) 米國勞働黨評議員會는 移民法의 正運動에 對하야 此等의 運動은 全혀 反亞米利加的行動인즉 吾人은 絕對로 此에 反對한다 如斯한 運動은 吾人으로 實現할 수 가 업다 信한다는 反對決議를 하얏더라

米國陸海軍飛行에 獨製飛行船利用講究

(ᄉᆞ완푸스코 八日發) 米國大統領「쿨리지」氏는 陸軍長官「위크스」氏, 海軍長官「윌바」氏, 商務長官「쿠바」氏에게 命하야 獨逸에서 製作한 飛行船「로스아젤스」號를 客貨運送에 利用할 案의 可否를 講究하기로 하엿더라

모로코의 戰亂과 佛西兩國의 媾和條件 結局은「리푸」族에 有利

(巴里電) 「루·마탄」紙「레주앤」通信員의 報한 바에 依하면 「리푸」族의 首將「아부델·크림」氏에 對한 佛、西兩國의 聯合條件이라는 것은 大要左와 如한 事項을 規定한 것이더라

一、「아부델·크림」은 現「모로코」王「무라이·유제푸·사투란」의 宗教的最高權을 認할 事
一、佛蘭西及西班牙는「리푸」族의 自由行政權을 認할 事
一、「리푸」族의 領域을 擴張할지라도 列強은 其地域內에 警察隊를 駐在케 할 事
一、「슈-타」及「메리라」는 南班牙에 歸屬케 할 事
一、新境界線의 管理는 此를 國際聯盟에 依屬할 事

一方各新聞紙의「마도릿도」通信에 依하면 若「아부델·크림」氏가 八月十五日까지에 佛、西兩國의 講和條件에 何等의 回答을 하지 아니할 時는 西班牙軍은 爲先海岸에 上陸하야 繼續攻勢에 出할 豫定이더라

國境問題紛糾 米國仲裁에 依託

(마나구아(中米니카라가國) 七日發) 國境問題에 關하야「혼주라스」政府는「니카라가」國政府와 紛爭을 繼續中이던바 今回國境으로부터 撤兵하고 同事件을 合衆國政府의 仲裁에 附託할 事에 同意하엿더라

訪歐機「이」市着

(일쿠스크 八日發) 「오노호이스카야」를 出發한 訪歐二機는「웨루네진스크」를 無事通過하야「일쿠스크」에 八日午後二時五十分無事到着하엿더라

普選法의 缺點改正 內、法兩省調査

(東京電) 國民이 幾十年來輿望하야 오든 普通選擧法은 第五十議會를 通過하야 次期選擧로부터 實施하기로 되엿스나 右普選法은 生의 苦痛을 몹시 당하야 完璧을 期할 수 업섯다 例컨대 缺格條項中刑餘의 人에 對한 生業은 極히 苛酷冷淡하야 刑餘者는 殆히 一律에 無資格者로 되야 普選의 本旨에 違反될 뿐 아니라 普選의 結果前科者임을 表面에 露現식히는 等社會上缺陷을 만드는 것임으로 此等缺點의 改

馮玉祥의 暗中飛躍 在野諸反奉派와 提携하야 ◇一方露飛機購入에 奔走中

(奉天電) 反節將軍馮玉祥氏는 今回의 反奉天派十省聯合會及國民黨等과 提携하야 盛히 暗中飛躍을 試하는 中인데 傳하는 바에 依하면 馮氏는 今回中國에 飛來한 露國飛行機六臺를 購入코자 奔走中인데 露國은 援助할 터이라더라

埠頭苦力再罷業? 中止期間은 九日로 終了

(上海八日發) 埠頭苦力의 罷業中止期間은 九日로 終了됨으로 十日부터 또 一齊히 罷業할터이나 多數의 苦力은 일의 繼續으로 希望하는 바 果然一致하야 再罷業할가는 疑問이더라

紡績罷業近近解決 兩三日中協定書調印

(上海八日發) 日本人經營紡績罷業問題는 矢田日本總領事와 交涉使의 會商에 依하야 解決되얏다 그레서 交涉의 難點인 出勤獎勵金은 十萬弗로 決定하고 中國側의 要求는 十二萬弗, 紡績會社側의 主張은 五萬弗 交涉使는 九日夜南京에 赴하야 右解決의 趣를 報告한 後十一日上海에 歸하야 協定書에 調印할터이더라

十省聯合 內情精査 張氏使節派遣

(奉天電) 十省聯合會가 擡頭하야 反奉天熱을 盛히 宣傳하야 奉天派를 牽到코자 함으로 將來奉天派를 爲하야 大打擊이 될지라 張作霖氏는 荒木顧問을 上海에 派遣하야 內情을 精査케 하기로 하야 同顧問은 大連經由 旣히 出發하얏더라

楊開甲氏의 來奉使命 諸督辦更迭問題

(奉天電) 段執政의 侍從武官楊開甲氏는 近日來奉하야 孫家花

關稅會議開催準備 議長은 顏惠慶氏로

(北京八日發) 華盛頓九個條約이 效力을 發生하얏슴으로 中國政府는 米國의 通牒을 待하야 遂히 近近特別關稅會議를 開하게 되얏다 그러나 其開會時期에 就하야는 列國間에 아즉 意見이 一致되지 못하얏슴으로 豫定과 如히 開할 與否가 疑問이나 最近中國側에서는 僅히 活氣를 得한 中國政府는 此의 準備에 幾番이나 會議를 開하고 段執政은 財政整理會長顏惠慶氏에게 一切의 準備를 內命하얏슴으로 顏氏는 關稅會議의 議長이 되고 王正廷, 蔡廷幹二氏는 顏氏를 補佐하기로 되얏다、顏氏는 特別關稅會議에서 不平等條約의 一部로 中國의 關稅自主權을 主張하야 關稅二分五厘를 附課하는 條約을 規定할 事로 要求하야 改善에 一歩明을 할터이다 그러나 列國이 此를 容할 與否가 大問題이다、如何間中國은 一旦開會한 後右의 要求에 出할 作戰인데 其間中國側에 相當한 主張이 잇슬지라 彼我의 主張에 若干의 間隔이 잇슬지라도 會議는 容易히 決裂되지 아니하리라 觀測되더라

對中關稅會議準備委員會

(東京電) 中國關稅改定會議를 十月開催하기로 決定하엿슴으로 外務省은 商工大藏의 各專門家를 網羅한 對中關稅會議準備委員會를 組織하고 充分審議하기 爲하야 不日間其第一回會合을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더라

米國艦隊 新西蘭向發

(오바ー트七日發) 米國巡洋艦隊는 熱誠한 送別裡에 七日「슈-지랜드」로 向하야 出發하얏고 尙且出發에 際하야 司令官「메슈데루」提督은「따스메니아」首相에 對하야 深甚한 感謝의 意를 表하얏슴에 對하야 總督「와-제임스오가두렌」氏는 米國艦隊乘組員이 將卒의 別이 업시 英國人의 同朋인 事를 表示한 것은 매우 感謝하다 答하얏더라

政務官選任과 加藤首相의 胸中

(東京電) 貴族院研究會側에 交涉中이든 政務官은 遂히 本日決定이 되엿는바 要컨대 加藤首相이 研究會에서 物色한 것은 政略에서 나온 것이며 一方研究會로서는 今內閣에 政務官을 出한 例가 잇슴으로 現內閣에만 此를 拒絕할 수도 업슬 것을 承諾한 것이오 水野直子가 陸軍政務次官을 아니하다 同子는 責任感의 强한 사람임으로 結局自己가 나온 것이오 또 講口伯의 參與官은 適任이오 또 井上子의 海軍政務次官도 사람問題로는 非難이 적은 貌樣이나 加藤首相이 特히 研究會에서 此等政務官을 取한 眞意는 此等人物을 通하야 本黨을 움직여 來議會의 解散을 避코자 하는 方策이라 推察할 수도 잇다고 政友本黨總務는 語하더라

憲政役員後任 ……銓衡觀測

(東京電) 憲政會에서는 今回八並幹事長이 政務官에 就任하얏슴으로 近近其缺員을 補充할터인 바 目下는 橫山勝太郎氏의 後任說이 有力하며 尙且小路總務의 後任은 暫時缺員된대로 進行할는지도 未知이나 若黨務의 形便으로 補缺한다 하면 樋口秀雄、小西和兩氏中에서 나오리라더라

今後政局은 有利發展 研派諒解와 共히

(東京電) 政務官을 貴族院方面에서 選한 事에 對하야 憲政會에서는 政務官을 圓滑케 하는 第一步이라하야 今後此等의 政務官을 活用함에 依하야 貴族院方面에 잇는 各種의 障害를 排除하며 延하야는 各議院方面에도 有利한 結果를 齎할 것이다 特히 研究會의 領袖水野直子가 任官하바 其背後에는 靑木信光子가 잇서서 諒解하는 것은 政府와 研究會의 關係를 密케 하야 少

憲政會와 研派間 今後政治關係

(東京電) 小笠原長幹伯은 研究會로부터 政務官을 내인 事에 就하야 次와 如히 聲明하얏더라 「研究會로부터 政務官을 내인다는 것은 研究會가 憲政會內閣의 與黨이 된 것은 아니오 兩氏는 個人으로 任官된 것인즉 研究會의 政治的主張은 將來何等의 拘束을 受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旣히 二政務官外지 내엿슨즉 從來隔하야 잇던 溝渠만은 埋設된 터이라 自此로 眞實한 是는 是、非는 非主義로 對政府態度를 取하야 憲政會와의 政治的關係는 自此로 一層親密한 道程으로 나어갈 것이라」云云

水野子就任과 研究會動搖前兆

(東京電) 第二次加藤內閣政務官으로 貴族院有爵議員團中研究、公正兩會에서 就任한 事에 對하여서는 同會內에서도 意外다 하는 者가 多하야 從來政友會系로부터 水野直子와 如한 最高幹部가 出하기로 決定함은 其形式이 個人이라 할지라도 事實研究會의 代表者를 出하엿슴으로 非憲政系만의 勅選議員을 包含한 研究會로서는 今後 반드시 會內의 動搖는 免키 難하고 적어도 宮田光雄、馬場鍈一氏等을 中心으로 한 所謂岡野系는 非憲政系勅選團이 公友俱樂部方面의 政務官을 同會內勢力의 中心에서 驅外에 放逐하는 運動을 起하던지 不然하면 新黨樹立의 運動을 起할 貌樣으로 有爵派와 勅選派間에 動搖가 이러날 것이라 豫想되더라 하야도 千餘議員間에는 一致하야 政府에 好意를 가질 것이니 此一面에는 近近乘行할 多數新納稅議員의 選擧에 當選하는 勅選議政會의 者로서 研究會에 入會하는 者가 相當히 잇스리라 觀測되더라

法制長官決定

(東京電) 法制局長官은 外務省條約局長山川端夫氏로 決定하야 今明日中發表할터이더라

政務官候補 ……變更決定

(東京電) 旣報한 政務官候補中左와 如히 變更決定되얏더라

外務政務次官 矢吹省三男
司法政務次官 本田恒之

銀行檢査 豫算要求

(東京電) 從來大藏省金融監督機關은 全혀 不備하야 一般財界에 惡影響을 及하는 金融業者가 發生하더라도 此를 知悉치 못하고 或時此를 發見할지라도 充分調査할 수가 업는 狀態에 잇섯고 先般行政整理는 一層더 此弊를 加하엿는데 如斯함은 唯獨히 金融界뿐 아니라 累를 一般經濟界에 及함이 甚大함으로 此現狀에 鑑하야 大藏省은 金融監査의 充實을 期하기 爲하야 銀行檢査充實에 關한 經費를 豫算項目下에 明十五年度의 豫算에 十六萬二千圓으로 要求하기로 省議가 決定되얏는데 其用途內容은 左와 如하더라

一、銀行局內에 獨立하야 銀行檢査에 關한 部門을 新設하고 全國的으로 連絡을 圖할 事
二、銀行檢査官으로 更히 約十名을 增員하야 玆四年間에 全國의 銀行檢査를 終了할 豫定

兩行整理斷行과 日銀의 援助方法

(東京電) 朝鮮臺灣兩銀行의 整理計劃과 其負擔輕減並目的으로 預金部의 兩行에 對한 融通金合計一億千九百萬圓은 其利息을 一律로 年二分까지 低減하엿는데 이에 應하는 日本銀行의 兩行整理의 援助方法은 左와 如히 決定되엿더라

一、朝鮮臺灣兩銀行에 對한 日銀의 融通金中各各二千萬圓을 限하야 其利率을 年二分으로 할 事
一、朝鮮銀은 現在日銀으로부터 整理資金으로 年五分의 一千五百萬圓을 借受하엿슴으로 此가 同樣으로 年二分으로 利率低下되는 外에 또 年二分으로 新規五百萬圓을 借入할 수 잇게 됨
一、右二千萬圓以外의 兩銀行에 對한 融通은 大體普通의 取引보다 其相保制限은 特히 寬大한 取引을 할 일
一、爲替資金融通의 最高限度를 增加하야 其利率을 幾分緩和할 額二千萬圓은 固定하게 될

地方長官異動

(東京電) 地方長官異動은 左와 如히 決定하얏더라

依願免本官 全羅北道知事 亥角仲藏
黃海道知事 矢鍋永三郎
任黃海道知事(二等) 專賣局庶務課長 今村武志
任全羅北道知事(一等) 專賣局長 靑木戒三
任專賣局長(二等) 營林廠長 水口隆三
任營林廠長(二等) 內務局土木課長 須藤素

兩氏新任命

諸實한 方面에 關한 바에 依하면 別項地方長官異動의 結果는 左와 如히 任命되리라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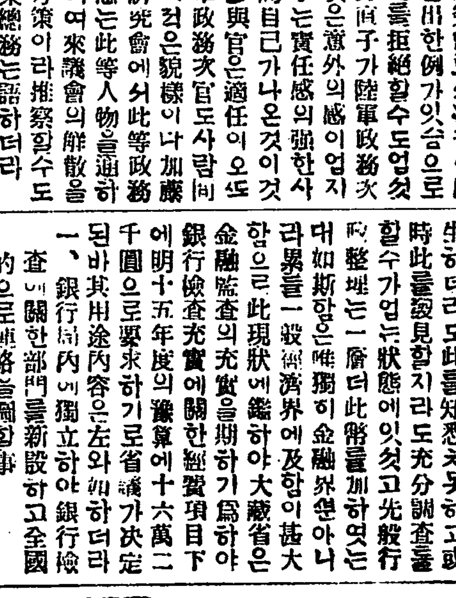
任東洋水利組合理事長 元全羅北道知事 亥角仲藏
任殖産銀行理事 元黃海道知事 矢鍋永三郎

利子引下와 預金部의 減收

(東京電) 大藏省預金部에서는 國際汽船、東亞興業、朝鮮銀行、臺灣銀行等整理를 要할 會社銀行에 對한 融資金에 對하야 三分或은 四分의 利子低下를 敢行하엿는데 此에 依한 一個年의 減收는 東亞興業約四十五萬圓、國際汽船約八十七萬六千圓、臺灣銀行百五十萬圓、朝鮮銀行約二百萬圓合計五百十二萬圓이오 一方預金部의 一個年收入은 資金總額의 運用의 如何에 依하야 增減이 잇스나 昨年度에는 在外預金債券의 運用에 依한 爲替差益約二千萬圓 普通運用收入約一千萬圓合計三千萬圓으로 今後資金의 總額에 顯著한 變動이 無하면 常態로 在外預金運用에 依한 爲替差益을 除하고 一個年約一千萬圓의 收入을 豫定하면 其半額이 此等利子低下로 因하야 收入減額이 되리라더라

新駐日伊大使 九日에 着任

(東京電) 新駐日伊太利大使「라바이아」伯은 九日午後零時十五分東京驛着直히 同國大使館에 入하엿더라



鐵筆寫眞
—(投稿歡迎)—
니발자옥와지난것을가지고

國調準備 거의 完了 來初부터 宣傳

朝鮮의 國勢調査는 當初臨時戶口調査의 形式으로 計劃되엿든 바 本年三月政府의 意見이 日本版圖中單히 朝鮮만을 除外例에 置함은 不均衡할 뿐 아니라 調査의 精神에도 沒却되는 것이라는 理由로 日本全國에 同樣으로 計劃되야 氏名、男女別、出生年月、配偶關係、本籍及國籍別의 五項에 就하야 全朝鮮을 四萬五千區에 區劃하야 所謂簡易케 調査를 行하게 되엿는데 此에 從事할 調査員은 [illegible]萬 千人으로 決定하고 一人에 百戶를 擔當식힐 터인데 京城府를 除하고는 各各任命이 잇섯슴으로 此調査員의 訓諫을 爲하야 十日間統計學의 泰斗元內閣統計官橫山雅男氏의 講演會를 釜山、大邱、京城、仁川、元山、平壤、鎭南浦、新義州의 十個所에 開催할 豫定인데 地方의 一部朝鮮人間에는 國勢調査를 異常히 曲解하야 此結果에 依하야 課稅率을 增加한다느니 或은 犯罪搜査의 手段이라느니 其他種種의 流言을 밋는 者가 잇고 期日切迫에 伴하야 至從其關係當局者는 其職業上最善의 努力을 할터인데 五月初旬부터 全朝鮮一齊히 趣旨宣傳을 決行하기로 되야 宣傳三萬枚는 이미 各道에 發送하고 又全朝鮮小學兒童으로부터 家庭에 傳하는 宣傳文五千枚도 近學校로 發送하기로 되엿는데 更히 全朝鮮의 主要한 郵便局에서는 宣傳消印을 幷擧하기로 遞信局과 協定하고 不日軍飛行機의 空中宣傳도 京城平壤釜山仁川開城大邱의 上空에서 行할 豫定인데 此에 要할 十萬枚의 宣傳文도 近日中에는 發送하게 되야 總督府의 調査準備는 今에 거의 整理되야 期日到來를 기다릴 뿐이더라

外米關稅免除 期限延長發表

十月三十一日까지

(東京電) 農林省은 外米의 關稅免除期限인 八月三十一日까지를 十月三十一日까지로 延長한다는 뜻을 發表하엿더라

都市研究總會

京城都市計劃研究會總會는 本日午後三時부터 商業會議所樓上에서 開催、生田內務局長以下來賓多數名이 出席하고 馬野府尹議長席에 着하야

一、副會長選擧
一、漢江治水問題
(가)漢江流域의 整理及漢江上流에 貯水池築造의 件
(나)京城都市計劃區域의 防水에 關한 件
一、龍山浸水地帶埋築의 件

을 附議하야 爲先馬野府尹을 副會長으로 選擧하고 繼續하야 漢江治水問題에 關한 會員의 意見開陳이 잇섯는대 有賀殖銀頭取는 每年如斯한 水害가 잇슴은 甚히 遺憾이다 總督府의 施設 其他事業計劃等은 水害에 供키 爲하야 施設하는 것 갓티 되는 다 맛당히 當局은 治水問題에 對한 根本政策을 樹하고 調査機關을 設하고 此의 根本的闡明을 하여 民心을 安定식히라 陳述하고 會員은 此의 贊和意見을 述하야 龍山居住民을 安心식히도록 하라 말한 後四時半에 休憩하고 再開議는 更히 龍山浸水地帶의 建築問題에 就하야 會員相互의 意見을 交換하고 當局에 要望하는 바가 잇슨 後散會하엿더라

滿鐵社債條件 十日에 決定될 터

(東京電) 滿鐵社債條件은 十日興業銀行의 集會에서 決定될 터인데 其槪要는 左와 如하다더라

一、金額三、五〇〇萬圓
一、發行價格九十四圓
一、期限十個年(二個年据置)
一、利率年六分
一、手數料一圓五十錢見當
一、拂込期日九月五日
一、申込期日은 八月十五日부터
一、應募利廻年七分五毛
一、發行者利廻年七分四厘

人事消息

▲崔奎東氏(中東學校校長) 本月六日星州郡鄕第에서 遭外艱喪

一週一瞥 日政局의 水平動

南支那海로부터 黃海上에 잇는 低氣壓은 八月五日來로 中部朝鮮以北의 降雨가 되어 旱魃에서 잇든 農民들로 하야금 愁眉를 펴게 되엿으나 一時에는 交通杜絕外지 되엿다 今年은 水災의 해이다 洛東江下流의 大洪水는 全國的으로 가장 慘한 被害狀態에 빠졋다 하다 殖利에 밝은 日本人의 資本家는 好機를 勿失이라고 互金을 품고 土地買收를 爲하야 洛東江下流地方으로 趨向한다 그는 睡眠을 要치 안는다 모처럼 凡俗의 世間에 와서 俗界의 敗退者를 짓고 부시럭거리는 것은 매우 迂遠한 일이라고 悠誘하는 者이다 世間에 利權을 쫏처서 다지안는 者업다 個人으로 그러하다 國民으로 또 그러하다 日本人은 現世의 勝者이다 그들이 利權의 압헤 納媚하고 趨拜하는 性質을 가진 것은 無怪한 일이다 往年에 佛國人은 日本人을 評하야 男은 偵探女는 娼妓라고 하엿다 佛國의 女性들이 얼마큼이나 所謂母性的貞操를 또처럼 動하는 것은 그의 常態이다

無節操한 賣笑婦

女性의 態度는 가장 世人의 笑罵하는 標的이 된다 娼妓가 홍도로 노는냐? 世間에는 絕對神聖한 者가 잇느냐? 中國의 政客들은 妓館과 妓房으로 外交舞臺를 삼지 안는다 日本의 天下大事는 待合室에서 密議하게 된다 政本合同은 政權을 到來할 압第一步이다 政友會總裁以下全幹部및有力者들은 雙手로 促成되엇다 兩派의 具體的으로 協定을 한는 바이다 政權이 가로갓다 政本의 合同은 停頓되엿다 憲政會는 上院의 政友系인 研究會와 交涉하기 비롯하엿다 그들은 所謂冰炭과 가튼 傳統의 關係가 잇섯다 그러나 幾案의 政務官과 參與官의 香餌는 ... 流의 華冑子弟인 伯子의 張로 遂然히 憲政會와 其合如蜜의 新關係를 맺게 되엿다 外務와 陸海軍의 政務官인 것은 重宜치 안는다 ... 의 說이 잇다 日本의 政客들이 權勢를 쫏처 浮動하는 것은 그의 常態어니와 그中에도 政本黨의 徒輩는 다시 一頭地를 버서난 者들이다 彼等의 貞操를 商品으로 하는 唱女와 가티 차려노흔 ... 할수업시 四處에 그 治遊郎을 探求하야 일즉이 忌憚이 업고 커한인가? 憲本研三派의 三角同盟說은 吾人이 居然信認치 안는다 그러나 本黨의 對憲政關係로 政界의 一波瀾을 預想하는 日本의 政情은 그 前途가 果然何如? 吾人이 아즉 常人의 心理로써 彼等의 動止를 揣摩할 수 업는 것을 안다 또는 重言을 要치 안함 말을 敍述한 바이엇다

對中條約批准

지난 五日에 華盛頓에서 米國國務省에는 關係列國代表者가 會合하야 對中九個國條約의 批准寄託을 終了하엿슴으로 當然히 向後三個月以內로 開催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엿다 이에 對時中英에 잇서「말타」島에 集中되엿든 英國의 驅逐艦十隻은 航路를 東洋으로 廻航中이라 하며 兩國의 爲政當局은 上海事件交涉에 對한 遲延責任의 互相轉嫁를 일삼고 잇슬뿐이다 前者孫科氏가 廣東政府를 代表하야 北京에 進出하매 外敵의 共同防禦를 爲하야 南北政府가 一致行動하기를 約定코자 함이라 하니 現下의 中國各派의 首領들이 이러한 直擊한 覺醒과 및 敬虔한 決心이 잇슬는지는 疑問이다 但張作霖、馮玉祥은 對內武力準備및勢力扶植에만 汲汲할 뿐 아니라 그의 對外交涉에도 바야흐로 親日의 競進中에 잇는 것 가트니 露都에서 突發한 日大使田中氏의 狙擊事件이 意外로 露中關係에 一段의 暗雲을 더하게 된 것은 자못 奇怪한 일이다 但 그 事實의 眞相은 아즉도 闡明되지 아니하엿다 吳佩孚氏의 系統인 湖北의 蕭耀南이 十省聯盟의 防禦團을 形成하야 이미 그 規約外지 作成되엿다 하나 斯種의 風說은 果次傳播되엇드니만큼 아즉 確信할 수 업는 蓋然性의 일이다 對中關稅會議에 對한 列國의 重要眼目은「쿠트」氏의 四原則에 依한 中國의 鞏固하고 또 有力한 中央政府의 成立維持를 促成或은 援助함에 잇는 것이어니와 米國을 除한 外他列國은 모다 態度가 模糊하고 英國은 依然히 强硬한 國威伸張의 態度를 가지는 形勢이다 만일 宣統帝復辟陰謀說見聞과 가튼 것은 某派의 捏造가 아닐는지 信憑하기에는 넘우 空疎한 感이 잇는 바이다

歐洲人의 殺伐

昨年一年中獨國民中自殺者가 二萬餘人이라 한다 戰敗後의 財政窮乏에 因한 國民的悲哀가 나흔 慘劇의 一面이다「모로코」의「리프」軍이 佛軍을 逆擊하야 汽車를 顚覆케 하고 多數의 死傷者를 내엇다 하는 것도 一奇報어니와 露國에는 田中大使의 狙擊 ... 「앗사리」大統領의 暗殺「칭」國에는 露守備隊長의 殺戮 葡萄牙에는 希臘人虐殺問題로 因한 開戰을 預期하는 國交의 險惡을 보게 되엇스며 前者波蘭의 獨逸人七千의 追放과 獨逸의 報復的波蘭人放逐計劃이 잇섯스며「나웬」八日發電은 羅馬尼亞政府가 北部「벳사라비아」國境地方에 居住하는 四千餘의 露國人에게 退去를 命하고 即時戒嚴令을 布告함을 報하니 殺伐과 軋轢中에 잇는 歐洲의 現狀은 반듯이 獨太子의 黃黑禍論을 例證으로 지아니할지라도 사람으로 그 禍機의 深遠한 바를 생각케 한다 (八月九日下午一時記)

八面鋒

○七十番外지 容恕하라는 基督의 敎訓을、信奉하는 基督敎徒間에 近來紛爭 暗鬪 血鬪가 流行한다!
○이것은 七十番容恕、가 人間性을 無視한 空論이 아니면、敎徒의 敎訓反逆인 事實을、實證함이 아닐가?
○統營某派敎會牧師와、敎徒間에 紛爭이 잇다、그런데 牧師가 스파이를、敎會經營의 幼稚園先生에 採用하는데 付同하는 것이 理由라 한다、宗敎가 政治의 走狗化하는 現象의 一面인가?
○馮玉祥의 密使가、渡日하야 各方面에 諒解를 要求하는 中이라고 親日의 奉天이 排日化한 셈 아마 日本의 密使가 먼저 滿洲에 게 갓든 게지!
○이것으로써、日本의 中國操縱方面의 努力을 알 모양

[illegible] 會文化部에서는 去六日下午八時半에 禮拜堂에서 [illegible] 內在的批判의 要求 [illegible] 講演會 (天安)

有給社員招聘 (有實業的人格者를希望함)
一、總支社長 壹名 (貨與商品五千圓以上月俸手當金)
一、支社長 若干名 (貨與商品參千圓以上月俸手當金)
一、支店長 (貨與商品貳千圓以上 七拾五圓 月俸手當金)
一、出張所長 (貨與商品 ... 五拾圓以上月俸手當金)
◎月俸外에 利益步合及獎勵金을 支給함
◎業務大擴張을 因하야 朝鮮及滿洲의 各府郡要地에 支社支店出張所를 新設함
▲支社支店出張所는 本社製品의 一般的普及을 圖하기 爲하야 各地에 代理店特約店을 募集하야 此의 都賣를 爲함
▲代理店特約店에는 入社의 商品廣告를 每日新聞紙上에 揭載함
▲二十五歲以上의 熟心한 活動家를 歡迎함 退官退職者를 歡迎함
◆商業을 經營하는 者는 無妨함 若干의 身元保證金을 要함 採用되는 時는 旅費를 支給함
神秘的靈藥蘇鐵엑이스 營養强壯劑 南洋珈琲
京城本町三丁目(若草町大通) 合資會社 南洋公司 電話本局三六一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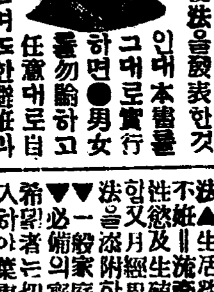
開業廣告
內科 外科 産婦人科 花柳病科 診察無料 入院隨意 隨時往診 (大小手術)
京義線新幕驛前(順天醫院)跡
高麗醫院
院長 東京醫學士 外科專門醫師 高炳 趙寅 許植模

水浸한 재봉틀修繕!!
弊店에서 實費로 修繕합니다
分解掃除費 四圓
팔방당 二十三圓
손들뚝경바탕 八圓
電話或郵便으로 通知하시면 가질러갑니다
京城府鍾路貳丁目貳七 電話(光)九六番
재봉틀商 楠商店

仁川 米 期 福 ... 藤林小
豊仲買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電話長六〇二番 五三六 電略「ユカ」

임질의 靈藥 治淋 一圓、一圓八十錢、三圓
梅毒의 靈藥 根治丸 一圓、一圓八十錢、三圓
京城南大門內 救世藥館 電本二九六九 振替一二六九

田中丸病院
內科、小兒科 院長 田中丸醫學士
副院長 菅 總治
外科、皮膚科 河 醫專學士
X光線듸아데루미ー科 佐久間技師
◎普通病室以外隔離病室도잇사옵
京城府西小門町二一 電話光化門一八八五、一三八六

性學大家 澤田順次郎先生著 四六判洋裝•三四〇頁 郵圖入美冊
▲任意대로 産兒하는 法(及)
避姙과 産兒制限法의 研究
보시요! 兒孩를 願하는 분이 되지 願하지 안는 분이 되지
◆本書는 著者가 多年苦心研究한 結果的確한 一大秘法을 發表한 것인데 本書를 그대로 實行하면 ●男女를 勿論하고 任意대로 自由로 産兒할 수 잇스며 또한 避姙과 産兒制限研究에 對하야 極히 平易하게 具體的으로 詳述한 것이오 其他 人工避姙法中의 變化及諸注意 避姙되는 時機의 되지 안는

定價 金一圓 特價 ... 前金注文送料 二十五錢
東京麻布富士見町七 振替東京四九四八四 正文社

[illegible] 一七八、六〇七圓輸移入四、六四九、六二四圓○三入超一、四[illegible] 皮一八、二四六▲[illegible]一七、五四〇 諸品一〇一、四一三▲合計一九[illegible] ▲牛皮八六▲其他 ▲麥酒五七、六八一▲[illegible]一五、九五〇▲綿寸三 四、八九五▲綿布及打綿二九、一 [illegible]

清川江沿岸海溢로 被害額이近十萬圓

해마다침해당하는주민더욱곤경

지난오일밤 열한시경안주군(安州郡)의청천강연안디대에해일이 심하야연호면로안리(燕湖面老安里)일대가바다로화하엿섯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그해일은립석(立石)신안주(新安州)방면에까지 옴습하엿는바 로안리를주요로 수확의희망이아조 단허진전답이 이백뎡보며 수확의희망을가진전답이 약이백뎡보로 약십만원어치가량의 손해를 보앗다는데 다만립석, 신안주방면의 피해구역은 각오십뎡보가량식이라는바수삼년래로 막심한 재변을당하는전긔주민들은 더욱 곤경에들엇다더라

大邱에도豪雨

일시는크게소동

칠일오전열시부터 경북각디에는폭우가쏘다저팔일정오까지계속하엿는바팔일아츰에는대구시내각처에침수가되엿스나큰일은업시 곳흡려버렷고 금호강(琴湖江)과팔달교(八達橋)가 넘처서영천(永川)현풍(玄風)방면의자동차는 통치못하게 되얏든바오후부터 개이엿슴으로 큰일은업시되얏다더라(대구)

博川에喜雨

오일부터륙일까지

평북박천군디방(博川郡地方)에는 오래동안비가 오지아니하야일반농가에서 크게 우려하든바는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지난오일오후구시부터 비가오기 시작하야 륙일오전까지 만히왓슴으로 일반농가에서는 크게깃버한다더라(박천)

洪原地方에도 회우가왓다

홍원디방(洪原地方)에는비가오래오지아니하야 농가에서 크게걱정한다함은 련보 보도한바어니와삼호(三湖)디방에도비가약 한달동안이나 오지아니하야 벌서산뎐가튼곳은 다 마르게되여 일에는 농민들이협의하야 긔우제(祈雨祭)까지지냇든바지난오일부터 약이틀동안련하야 비가옴으로 농가에서는 크게깃버하는모양이더라(삼호)

碧潼地方에도ー

삼일을비가와서

평북벽동디방에는 한달전부터비가 오지아니하야 인심이 매우흉흉하든바 지난 삼일저녁부터 삼일간을 련하야 비가옴으로풍년의조짐이라고매우깃버한다더라(벽동)

海州降雨

황해도해주디방(海州地方)은런번장마이후로 련일 사나운햇발이 계속하여농작물이 다시한재(旱災)에걸리기 시작하야 수재후에 또한재로인심이 자못어지러웁게 되던차에 마츰지난륙일부터나리는비로인하야 한재는면하고 인심은평온하여젓다더라(해주)

鐵山에喜雨

평북 텰산(鐵山)디방에는 비가 오지안아서곤답에 한발이자심하야 피해가적지안타함은 루차보도한바 어니와 한참인심이 흉흉하든차에지난사일(四日)오후팔시사십분부터 단비가만족하게 나림으로 일반농민들은 깃버한다더라(텰산)

大田에도

충남대전(大田)디방에는비오기를 갈망하던중지난 륙일오전두시부터 비가오기시작하야 약이틀 동안이나계속하야 농작물에매우 리롭다더라(대전)

退職巡査의非行

필경발각되여

녀자는본부에인도

전평북차련관(平北車輦館)경관주재소경부보(警部補)대파(大波)모는선천경찰서에재근하고잇슬때에 그곳 유력자일본인림모(林某)안해승자(勝子)(假名)(三一)와 비밀한 관계를맺고잇던것이 발각되여 지난칠월이십일경에 마참내 면직(免職)처분을당하고 전긔승자와함의 평양에잠복하며 이래불의의 관계를계속하여오던중 칠일밤에 이르러평양서원에게 발각테포되엿는데 금취됴를밧는중이오 전긔승자는그의남편에게 인도되엿다더라(평양)

漢陽青年聯盟 事務進展

발회식은 오는십오일밤에

시내 락원동에 림시사무소(臨時事務所)를둔 한양청년련맹(漢陽青年聯盟)에서는 새로운예긔로모든 사무를진행하는 동시에가맹원(加盟願)이 답지하는바팔일 오후구시에 그회관에서데삼회집행위원회(第三回執行委員會)를열고 홍순준(洪淳俊)군의 사회로의사를 진행할새그동안의 경과보고와 각방면으로출장하야 됴사한 상황보고가잇슨후 의사에들어가서 청년련맹의발회식(發會式)은 오는십일일에하라던것을 일자(日字)가너무촉급하야 십오일로하는것이조타고 가결된후 신흥청년동맹(新興青年同盟)과 경성청년회(京城青年會)의가맹원에대하야 상무(常務)로부터 자격심사보고가잇슨후 접수하기로 가결된후 이와가티 일방으로가맹단데가늘어가며 모든사무가 복잡하여짐에 딸아 집행위원을 증선치아니하면 아니되겟다하야 집행위원(執行委員)을증선(增選)한바 박헌영(朴憲永)김장현(金章鉉)씨가 선거된후오후십일시반경에폐회하엿다더라

漢陽青年聯盟에 신흥청년가맹청원

경성부근에잇는 청년단데(青年團體)를망라하야 한양청년련맹(漢陽青年聯盟)을조직하고각방면으로 활동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와갓거니와 시내 관수동(館水洞)에잇는 신흥청년동맹(新興青年同盟)에서는 팔일에 곳가맹원을제출하엿다더라

平北朔州에武裝團

경관대가뒤를추격중이다

평북삭주군남서면(平北朔州郡南西面)에서는지난일일밤에당디경관이 무장단(武裝團)삼명을부상식힌일이잇다는데그내용을 드른즉 무장단오명이 의주군옥상면(義州郡玉尙面)으로부터넘어왓다는 뎐보를밧고 엄중경계중에동일오후구시경에난데업는 총소리가 남으로그곳에근무하던순사삼명이몸을질려안젓다가 발총하야 중상을식힌것이라는데 그들은즉시피무든군복(軍服)은버서바리고조선의복을어더입고자최를 감추엇다는바 경관대는그뒤를추격중이라더라(삭주)

思想運動社 孫案秀事件

량씨무료변호

경남디방에서 출판법위반이란 죄명으로 수감되엿든 전사상운동대구지국장(思想運動大邱支局長)손안수(孫案秀)(?)군은 부산디방법원거창지텽(釜山地方法院居昌支廳)에서 작년팔월의 판결을불복하고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공소하엿든바 공판날은 오는십일일이라하며 이사건에대하야 변호사 조주영(趙柱泳)손치은(孫致殷)량씨가 특히무보수로 변론한다더라(대구)

少年教育에犧牲者

수양(修養)의시긔에잇는꼿가티피여오르고 청년남녀가 그날그날의 먹을것을구하기에 모든시간을희생에바치고배우고십흔마음은 간절하나 배울곳이업시허매이는무산자(無產者)와로동청년(勞動青年)을 위하야 문진환(文珍煥)조홍장(趙鴻章)리병기(李炳基)의 제씨는 동대문례배당(東大門禮拜堂)아래층을빌어홍인강습원(興仁講習院)을설립하고 야학(夜學)으로서 이래사오년동안을무보수(無報酬)로성심교육한 결과금일에는 팔십여명의학생을 수용하고또는 다수한졸업생까지내게되엿다는데이에대하야 부근일반은 그들의 성의에감사함을마지안는다는바그강습소에서는월사금이라고는필묵사쓰기위하야 다만이십전을바드며 교과서는무료로빌여준다는데현재직원은다음과갓다더라

院長 文珍煥 學監 李拓基 講師 趙鴻章 曹秉模 李聖恩 李德卿 李丙鎔 尹一燮 金演恒 金鍾夏 具然昊

萬四千里밧게서

서로말한무선뎐신의기술

미국『시카고』(市俄古)의한신문긔자는방금북극탐험(北極探險)중에잇는『마미란』씨와 무선뎐신(無線電)으로서 담화를 하엿다는바 방금『그린란드』의『에짜ー지』에 뎡박(碇泊)하고잇는『마미란』씨의탐험선『쎄ー치호』와 그담화는 약사천『마일』조선리수로 일만삼천삼백여리 거리에서 이야기를 교환한것이다 『마미란』씨는『보두인』과『뒤네다데』의

이야기는

분명히들린다고말하며『에ー다』에 엇든『에스기모』사람들은 무선뎐신이상한 발명이나 류성긔(留聲器)만은 못하다고 말한다하며 아직까지『시카고』신문긔자는『마미란』씨의일행『에스기모』로인에게류성긔소리를들녀주고잇는것이들린다고 발표하엿다더라(시카고뎐보)

青邱少年創立

시내 경구소년회(青邱少年會)창립총회는 팔일오후 팔시부터 창성동준비회관에 열고문병찬(文秉讚)군의 사회로 림시의장백남신(白南信)군의 축사가잇슨후임원선거를마치고 창립총회를 마치엇더라

會長 韓百熙 副會長 李秉斗 總務 張革波 智育部長 李 部長 白南信 體育部長 李 獄 會計書記 各一名 幹事 文秉讚外四名

今後染病은 차차감소하다

周防衛生課長談

오는십삼일에는 장질부사 예방주사에 대하야 일반에게 공시할터이라함은 별항보도와갓거니와 이에대하야 경긔도 경찰부위생과장 주방정계(周防正季)씨는말하되 최근몃칠동안을두고 발생되는 장질부사환자를 됴사하여보면 차차 감소되는것이 확실합니다 그원인이라하면 예방주사를 시행한후 약일주일후에는 그효력이 나타나는고로 금후로는 확실히 감소될줄로압니다

自轉車旅行으로 世界勞働狀態調查

작년륙월일일에모스꾸바를 출발하야일년만에일본도착

세계로동상태를 됴사코저 로서아서울『모스꾸바』로부터자뎐거(自轉車)로출발한두명의로국학생은팔일에동경(東京)에도착하야적판구(赤坂區)에잇는규(葵)『공펠』에 류숙중인데 그들은 발하기를 거히듣은『모스꾸바』농학전문학교(農學專門學校)생도로서 작년륙월일일에『모스꾸바』에잇는『세마시노푸』공원에서 농무대신이하 여러동무의 성대한전송리에서 자뎐거로 출발하야『옴스크』『돔스크』『치다』를 거처 십월이십이일에해삼위(海蔘威)에도착하야 다시상해(上海)로건너갓섯스며지난달

이십팔일

에신호(神戶)에상륙하야경도、명고옥(京都、名古屋)을지나자뎐거로 동경에이르럿는데 목뎍은 세계의로동상태됴사연구로서 그동안 려비

水災救濟에熱情인 羅晴湖氏石碑를

광주리재민이 세우게되엿다

지난번 홍수때에 광주군봉은사주지(廣州郡奉恩寺住持)나청호(羅晴湖)씨가 거액의 금품을던저서 다수한리재민의생명을 구제하엿다함은 당시보도 하엿거니와 광주군언주면부리도(廣州郡彥州面浮里島)와 고양군독도면잠실리(高陽郡纛島面蠶室里)에거주하든 리재민들은 수중원혼이되고 말것을 봉은사주지 라청호씨의 은덕으로 회생하엿스니 그재생한 은혜(再生之恩)를 잇지안코자 돌비(石碑)를세우기로결의하엿다더라(송파)

그사정을 탐문한결과 전긔하수구 시설에 관하야는 다소량해가잇는듯하나 아직확실히는 알수업슴니다 래일다시 총독과정무총감을방문하고 더진정하여 보랴합니다

長津에도武裝團

중국민병복을입은무장단

지나간오일에 장진군신남면용흥리박긔하(長津郡新南面龍興里朴基河)의집에중국민병(中國民兵)복색입은 무장단(武裝團)사십여명이 장총과권총(長銃拳銃)을 휴대하고침입하야 군자금을 강청하엿스나 본래현금이업슴으로 군자금을 감추엇는데 이급보를접한 경찰서수색반(警察署搜索班)은 즉시현장에 출동하야 범인을잡고자노력중이라더라(원산)

平南警察部에 잡힌靑年

복장잘차린 중국인청년

평남도경찰부(平南道警察部)고등과에서는 요사이에 일으러 긔괴한 활동을 개시하고 연일새로운사실을포착하기에 전력을다하는중이라는바 이제그내용의대강을알아보건대 동경찰부에서는 수일전에 경찰계에일등형사중촌(中村)경부보를 만주(滿洲)방면으로파송하야 오륙일간그곳형편을자세히살핀후에 이삼일전에 도라오게하얏던바 팔일 오전중에 전긔중촌경부보는이번길에가티 다리고도라온듯한 말숙한 신사청년한명을다리고 경찰부 응접실(應接室)에 모도이에서압뒤문을 모다닷고 무슨일인지장시간의 구수협의가 잇섯다는데 그청년은 최신류행의 말숙한양복을입고『생고무』다갈색단화를신은 얼는보기에 이십오륙세가량의 중국청년이엇다 이에대하야 이덧(伊達)경찰부장은 귀욱이랑때한빗을띄우며 군세울시다 아즉 도라온후에 아모보고도밧지못하엿스닛가 나도모름니다마는 지금 무엇이라고 발표하기는 어렵슴니다(평양)

黃海少年大會

이십사오량일간 재녕서개최한다

황해소년대회(黃海少年大會)를팔월이십사오량일간재녕소년회관(載寧少年會館)에서열리라는바참가할 소년단데나소학교의(개인도무관함)참가신청은 이십삼일까지 사리원봉산소년회관(沙里院鳳山少年會館)안에잇는 황해소년대회준비회로신청함이 조켓다더라

錦山에豪雨

홍수이후로처음

전북 금산(全北錦山)디방은 지난홍수이후로 비가 오지아니하야 일반농가에서는 우려하던바 맛침 칠일새벽부터 오는비는그날밤까지 계속하야 모든농사에 흡족함으로 일반농가에서는 깃버한다더라(금산)

平壤乘車券改正發行

평양부(平壤府)에서는승객의편리를 도읍기위하야 종래의회수승차권(回數乘車券)이십일회일원짜리와 이십륙회일원이십오전짜리를 폐지하고 팔월십오일부터 이십오회(二十五回)승차권일원짜리를 개정발행하리라더라(평양)

採鑛所崩壞 一名壓死

평양부의 사동광업부에서

평양부외사동광업부(平壤府外寺洞鑛業部) 광부김긔찬(金基贊)(四三) 차은길(車恩吉)(二六)두명은 칠일오후구시경에 그광안에 드러가데삼호채광소(第三號採鑛所)일백팔십척이나되는 디하에서 채광중에 머리우로부터흙이문어저 그자리에서 압사되엿다더라(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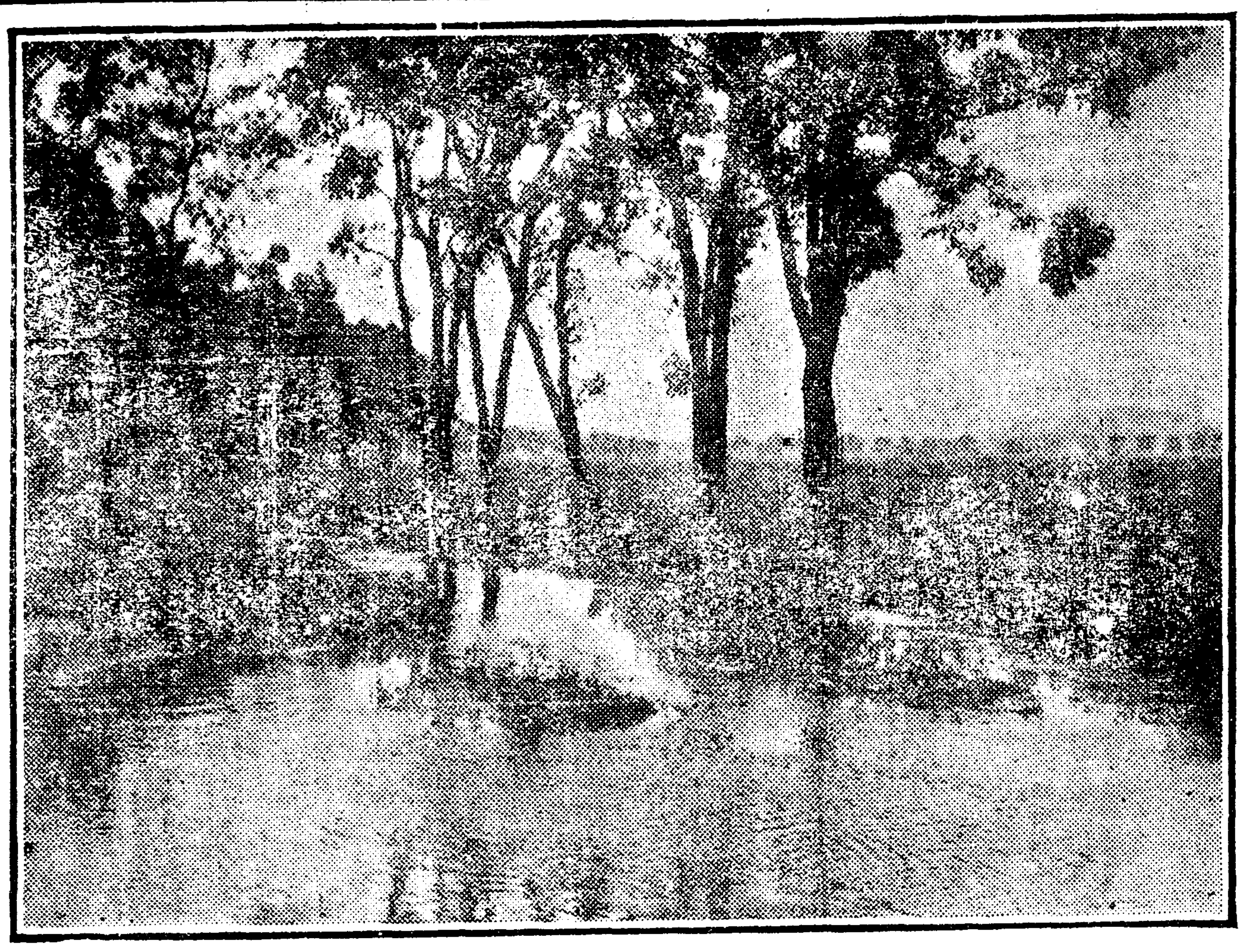
東京朝鮮基督教會와青年會

동정금삼십원을 종로청년회로보냇다

일본동경(東京)에잇는조선긔독교회(朝鮮基督教會)와동교회청년회에서는 금번조선수재동포를 구제코저 동정금삼십원을모집하야 경성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로보냇다더라

竊盜한돈으로 유흥중에톄포

경긔도양평군 갈산면양근리(楊平郡葛山面楊根里)에 본적을두고일뎡한주소가업는 조희서(趙熙西)(三五)는구일오전 여섯시경에 시내병목뎡(並木町)일백오십일번디 원뎐종남(原田種男)의집에 침입하야 현금일백구십사원팔십전을 절취하야 가지고 병목뎡 유곽에서 유흥하다가 본뎡 경찰서원에게 톄포되엿다더라



◇……서늘한녹음=개비인뒤인청량리에서……◇

罷業工要求는 時勢업서못드겟다

대동인쇄회사당국태도 직공의태도도여시강경

대동인쇄주식회사(大東印刷株式會社)직공파업문데에 관하야팔일오후십일시경에 경성인쇄직공조합(印刷職工組合)에서는긴급위원회를열고 전긔문데에관한 교섭위원으로 리응종(李應鍾)씨외 이인을선거하야구일오전십일시에 대동인쇄회사당국자와 교섭한결과 회사측에서는 현재는 시세가업슴으로 도뎌히 직공측의 요구를드러줄수업슴으로 그대로다시 파업을 중지하고 복업하면 시세가회복되는대로 곳요구를 드러줄터이라고말하며 파업단의 태도는아사(餓死)의결심으로여전히강경하다더라

印工組合會 긴급히연다

전긔조합에서는 이문데에 관하야 충분한토의를하고저 구일오후팔시에 시내견지동(堅志洞)시천교당(侍天教堂)에서인쇄직공조합림시총회(臨時總會)를연다는데 일반회원은 전부출석하기를바란다더라

腸窒扶斯豫防注射 十二萬四千餘名

팔일까지시내에서주사수효

경긔도 경찰부 위생과(衛生課)에서 팔일까지 시민에게시행한 장질부사 예방주사는 십이만사천명에 그실비가이만 사천원에달하엿다는데 팔일까지 경성시내에는 위선것을 마치고구일부터는 시외삼만일천륙백인 에게시행하야 오는십삼일에는 일단락을지을터이라더라

郡部는九千圓

그외는전부경성에서

팔일까지 경긔도 위생과에서소비한 뎐염병예방비(傳染病豫防費)는 삼만사천원가량이라는데이중에 약구천원가량은 각군부에 사용하고 그나마지는전부경성시내에 사용하엿다더라

光州市河川整理로 市民이上京陳情

디방서보조가안된다하여서 십일에는총독총감방문예뎡

전라남도광주(全南光州)는상당히 번화한도시로 지금까지하수구(下水溝)가 업서서 위생상광주시민의건강을 위협하여 오든중여름철을 당하면 더욱심하야외면으로 시가의 미관까지 보키어렵게되며 시가의 중앙을횡단한광주천(光州川)의수축이

불충분하

야 홍수가지면 시민에게 또한막대한 위협을주게되는고로 그곳주민들은 항상그것을 유감으로알고 하수구시설과 하천정리를 긔성코자여러가지로 대책을강구하여 오든중전라남도당국에그실현상보조를요구하엿스나 도에는 그만한디방비가업다고 거절하는고로 시민들은총독부당국에 그사정을진정코자 시민대표로 덩상호(鄭尚好)씨외 사씨가 팔일아츰에 입경하야 즉시총독부각국과장을 방문하고 그사정을말한결과 하수구시설에 관하야는 다소량해를 어덧스나

더정확한

회답을듯고자 십일에는 총독과정무총감을 방문할터이라더라

問題는 本府補助

십만원본부 보조만되면 代表鄭尚好氏談

이에대하야 그대표중 뎡상호씨는말하되우리광주는하수구시설이업고하천정리가불충분한까닭으로 시민에게 막대한위협을주는것은사실이외다하수구시설비십사만원하천정리비십만원합이십일만원의 공사비중에 십만원만총독부당국의보조를청하고그나마지십일만원은반분은전라남도령에서보조하기로하고반분은광주 전부근에잇는 공디를방매하야 보충하기로 예산을하엿는데 총독부에요구한것만 드러주면기라는 문데업시 될듯합니다 총독부 각국과장을 방문하고

廣州郡中坮面松坡里 二千住民의困境

버드나무로지언든초막이 이번비에도새여목불인견

광주군 중대면송파리(廣州郡中坮面松坡里)는총호수 이백오십여호 인구이천여명이 거주하던동리이던바 긔번홍수로 집과즘물을 전부물에떠내여보내고 주민이천명은 거할곳이업시 면공동묘디에 동리를옴긴후 개천가에버들가지를 버이어다가 초막(草幕)을짓고일시 거처를덩한후조선긔근구제회(朝鮮饑饉救濟會)에서온 백미이십사표 소미일곱섬 외에 광주군령과 보사에서 보낸량식으로 오늘까지 연명하여왓스나 금후부터는 식량을구할곳이 업슬뿐외라 칠일아츰부터 나리는비에는 초막에는 비가새이어이 호우로 천주민은 다시를난리를 맛나그처참한 생활은목불인견 이라더라(송파)

蔚珍面有志 구제금모집

강원도울진군울진면에서는금번수해에 먹을것업고 입을것업는 리재동포를 위하야 일백이십일원삼십오전을거두어 동면면장 장인환(張仁煥)씨의명의로본사에 보내여 구제에보태여쓰라고 하엿는데 의연한제씨의 방명은다음과갓더라

金十圓蔚珍面長張仁煥 金參圓竹邊區長田仁錫 金五圓竹邊林源植 金貳圓五拾錢金八龍 金二圓式金蘇宗龍林熙祚李寔成金富七林順伯金漢述權寗出崔鳳文 金一圓五十錢李敬化朴明出金溶規朴在淑河允柱張弘植李相泰李達文崔聖寶崔五鳳 金一圓式金致宗金允祚金桂重安大述權起弘黃東先史學南金述伊尹順祚韓仁淑李有福趙錫伊陳舜石 金一圓五十錢式金順石崔大鎔 金一圓式金錫龜金首岩權泰彌朴木村李三甫金元右朴錫五崔佑贄朴述伊張景寔鄭鳳學李賢雨林慶元朴光中韓億萬李石源徐聖文董億萬徐日龍朴基萬韓東漢崔四鳳金上國千順日 金士文李宗學李千萬崔吉文朴子雄金致彥 金八十錢李順宗 金七十錢李福祚崔德舜 金六十錢朴君善 金五十錢朴聖述朴基出 金六十錢金德三 金五十錢金文右崔基彥金相天金永淑朴明習 金沒嚴元梁伯朴倡祚崔龍兒李春花趙竹濱千興龍韓永壽崔千甚朴仁錫 金四十錢金守日 金六十錢李龍伊 金五十錢朴順天 金四十錢權秉琢朴善習 金三十錢朴振八都致玉金高斗朴禹永黃成五崔賢雨羅鎮杓黃永浩嚴宗植李德三權大秀安述伊 金三十五錢朴聖三 金二十錢式朴俊日朴東彰黃東伯金學俊李春三 金士龍鄭用伊梁奎煥 金十錢式李龍伊林炳祚崔敬重趙龍先安正出林順敬都炳俊 金五十錢田煥基 金三圓林觀奎

計百二十一圓三十五錢也

鍾路署에잡힌 被疑者

상해○○단에 관계된사람이다

시내 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는이삼일내로 공긔가비상히 긴장하야 락원동(樂園洞) 모의집에 류숙하는 년녕사십사오세된 신사가티생긴 사람한명을 검거하는외에 형사두명을 급격히 원산(元山)에 파견하야 대활동을 개시하엿다는데 사건내용은 비밀에 부침으로 발표할자유는 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긔피의자는 작년봄에 중국상해(中國上海)○○단의 사명을바다가지고 북간도를거쳐 원산에드러와 그곳에얼마간 묵하다가 각군으로 다니며군자금모집에 종사하엿는데 근일에이르러 작년칠월경에 가평(加平)모부호의 집에서 군자금삼백원을바든사실을 탐문한 종로서에서는 별안간활동을 개시하는동시에 원산에까지서원을 파견한것이라는데 사건은 시일의경과를 따라 점점커질 모양이라더라

종명자

▲이번수재구제에여러가지삽화(揷話)가 만흔대수해가한참심하든지난십구일에시내장사동일백륙십육번디사는류용재(柳用載)씨라는 사람이 ▲시외동막동우구락부(東幕東友俱樂部)구호소에와서 이십일일저녁밥을 리재민에게대공하겟다하고그후에는소식조차돈절하다고 ▲설마참고대로 그런것은 아닐것이요 그만한힘을 다른데리재민에게 썻겟지만 기다리는 구호소의사정도 좀생각하여주어야할것이 아닌가▲장질부사 예방주사를 경긔도경찰부위생과에서 시작한이래 벌서십이만명이라하니 그공로는 공로이려니와 ▲서대문밧 죽첨뎡(竹添町)의주통(義州通)일대에는 지나가는부녀자를 붓들어서 밤이깁도록 강제주사를 한다고 주민의불평이 불소하다 ▲이런 폐해는 주사하는 리원그사람들의실수일것이나 위생과 당국자가 그책임을져야 할것이다

◇集會◇

◇現代少年講話 현대소년구락부(現代少年俱樂部)에서는구일 오후여덜시반부터 시내 인사동(仁寺洞)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 일요동화회(日曜童話會)를개최할터이라는데 입장은 소년소녀에게한한다하며연사는 다음과갓다고

李伯均外三人

技競運動

흔한待期의斯界 취코庭球

湖南終了와其他 地方申請期限

日本野球界覇王黃明源氏는本社運動部의招聘을바다朝鮮地方巡廻庭球코취를第一回로今湖南地方을巡廻中인바不日間第一回코취를마치고압호로三四回로난호아巡廻를行할터인바京釜京義京元沿線等地의學校又는靑年其他團體로서志願하는團體는速히京城水標町朝鮮日報社運動部로申請할이조켓는데그申請은八月十三日外지이며全部巡廻費用은無料이다그러고巡廻日程은申請接受를마치고發表할터이다

西朝鮮個人庭球

平南順川郡時代朝鮮日報順川支局主催로西朝鮮個人庭球大會를十六日順川中學講所코트에서열터인바本大會優勝組에게는賞金메ー달을授與할터이라하며申請은一組一圓式으로十五日外지主催側에申請할이조켓더라

盛況으로마친 木浦의庭球大會

優勝은群山軍

木浦體育會主催와木浦青年會東亞朝鮮兩支局後援으로열린第二回全朝鮮庭球大會는去一二日間木浦體育會코트에서黃明源氏主審으로열리엇는데參加한四十六組는大體斯界의老練한選手들로자못活氣를呈하엿다最後의優勝은群山金錫祚池載豐組에도라갓는데其成績은如下

四日 豫選戰

京城	金新應 南宮璨	2-3	金鍾洙 林周弘	光州
群山	金[illegible]	3-0	[illegible]	和順
光州	村井 渡邊	3-0	[illegible]	寶城
光州	金[illegible] 朴漢東	3-2	金[illegible]	

準決勝戰

光州	金鍾洙 林周弘	3-4	金錫祚 池載豐	群山
光州	村井 渡邊	4-2	金[illegible] 崔東文	光州

決勝戰

群山	金錫祚 池載豐	4-0	村井 渡邊	光州

南朝鮮庭球大會

全北井邑郡古阜面元古阜邑內學友會에서는來二十二三兩日古阜青年會코트에서南朝鮮庭球大會를開催할터인데參加金은二圓이며申請은八月二十日外지요監督會議는八月二十一日午後八時라하며同面青年會와合力하야準備에紛忙中이다

衡平分社創立

店村에열린 九郡聯合

十日부터事務開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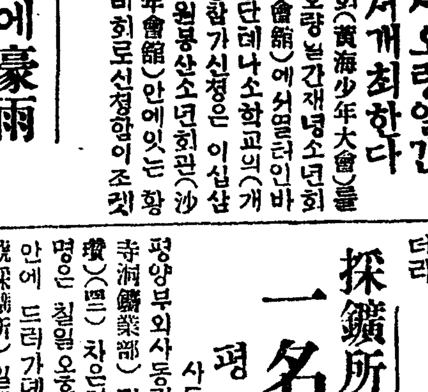
豫告한바와가티 本社代理部는十日부터 事務를開始하게되얏슴니다本報와 一般으로만흔愛護를주시기바람니다 地方特產品의宣傳販賣其他發明品의紹介等產業의發達을爲하야될수잇는대로努力코자하오니希望이계시면隔意업시 相議하야주시기를바람니다 物品의販賣는二十日부터開始하겟스며一販賣하는物品은本報의紙上으로一一히報告하야讀者의選擇에바치고자합니다 交通이不便하야低廉한價格으로흔物品을選擇키어려우신地方人士의便宜를圖謀하기에特別히誠力을다하고저함니다僅少한物品이라도 注文하시는대로가장誠實敏速히酬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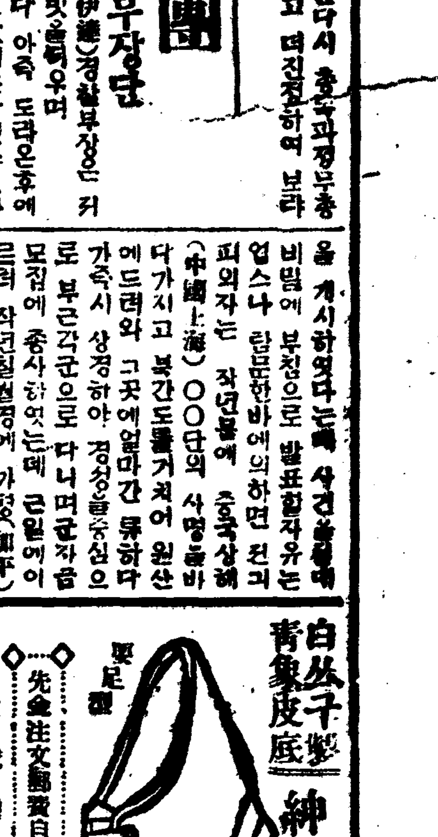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朝鮮日報代理部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七九八番

優美館 八月十日

八月四日火曜부터二大連續提供
◎米國씨테ー支社超特作 뚜스란드孃猛演
連續冒險活劇 森林女王大會 全十五篇三十一卷
解決篇 自第十一篇至第十五篇 拾卷上映
米國씨테ー支社 뚜스란드孃決死的猛演
連續冒險活劇 巖窟女王 全十五篇卅一卷
觀覽料 階上 大人六十錢 小人四十錢 階下 大人四十錢 小人三十錢
日活特約 優美館 電話光九五番

當八月八日土曜부터公演
◎滿天下愛劇家는안저주소서 過去拾有餘年의我劇壇의積功잇는 紫星座金小浪一行大規模의特長
興行連鎖劇新撮影한主要藝題
一、忠義道 一、長恨夢 一、사랑의싹 一、夜의鶯 一、片時春 一、海鳥曲 一、秋月色 一、눈물
藝題는每日交換합니다
下午八時開演 大豫告來週上映
大探偵大活劇 女探?女賊? 全七卷
激鬪의天地 全八卷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番

新刊目錄定價表進呈

友助堂
各種時計貴金屬販賣
京城南大門通一丁目 振替一八九五番 電話光二〇五二


白丝子製 靑象皮底 紳士靴專門製造商都散賣
白丝子製 靑象皮底 特製 四圓
同上品 三圓
山羊皮特製短靴 五圓均一
要足型 先金注文郵費自擔
京城鐘路二丁目一〇〇
東亞社製靴店

全治水
마른버짐 진버짐 낭습 오금 피풍 어루레기 其他皮膚病一切의良藥
東京牛込揚場町 尾澤商店

◆가장確實하여 資本을不要함 ◆有利하여누구나될수잇다
農村의副業
◆不景氣、生活難도不足畏 ◆働하라働하라 여긔에理가잇다
特價 限金一圓
東京麻布富士見町六 正文社 振替東京一五八番

가뎡부인

금십일부터 개시
가뎡手예강습회
희망자가 너무 만하서 뎡원외 열명을 더 느러

조선일보사 주최의 뎨일회 가뎡수예강습회(第一回家庭手藝講習會)는 입회희망자가 의외로 만하서 참가신청이 한인팔일 오후 네시까지 근 백명에 달하얏슴으로 본사에서는 회장관계로 부득이 뎡원에 열명을 더하야 사십명만 선발하야 입회를 승락한다는 통지를 이미 발송하얏스며 금십일 오전 구시부터 남대문통 일뎡목 조선일보 대리부에서 강습을 시작할터인데 입회승락을 바든 회원제씨는 십일 오전 팔시 사십분 안으로 꼭 회장에 모히어야 되겟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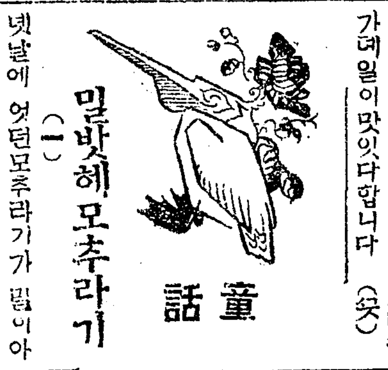
료리하는 개고리 (三)
겨울동안을 잠자는 개고리 가지가지의 료리하는 방법

먹는 개고리도 보통개고리와 가티 십월금음부터 동면(冬眠)을 시작합니다 해마다 그때가 되면 흙속에 업데여잇다가 그 이듬해 봄——즉 양춘가절을 당하야 비로소 갑히 들엇든 긴잠을 깨이고 맑게 흐르는 시내물로 뛰여나옵니다 련못속에서 기르는 개고리도 겨을이면

◇못미테 잡복하여 먹지도 안코 마시지도 안코 잠만 자고 잇슴니다 그럼으로 그동안은 밋기를 줄 필요가 업스며 동면하는 개고리를 기르는 련못의 온도와 그토디의 한란(寒暖)을 따러 얼마쯤 차이가 잇슴니다 그런데 개고리를 기르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할것은 개고리를 해치는 배암 룡즘생 큰고기등을 결단코 련못에 드러오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한마리라도 눈에 떼이거든 곳 따려죽일것이올시다 그리고 못련 가둘레로 둘른빈지 우에 철망이나 혹은 망사를 덥허서 배암가튼것이 떠러저 나려오지 못하게 할것입니다

◇개고리 가자랄때로다 자라서 장에 내여다 팔게되엿거던 밤중에 불을켜가지고 개고리가 놀다지 안토록 가만가만히 련못으로 드러가 잡어가지고 나올것이올시다 만약 개고리를 한거번에 만히 잡으라거든 못물을 모다 쌤아내이고 여러사람이 드러가 단번에 다잡게 할것이올시다 개고리료리는 사철 어느때던지 맛이 조흐나 봄에 먹는것이 더욱 조흐니 개고리를 잡어서 칼로 머리를 째여가지고 그리로부터 접질을 벗길것이요 배를 갈르고 내장을 뽑아내고 발톱들을 다 째여내인후 간장을 붓고 조리던지 젓을 담던지

◇양념을 하야 굽던지 복던지하여 먹을것입니다 함경도에서는 벌서 오래전부터 개고리로 젓을 담어먹는 풍속이 잇스니 그것을 뛰젓이라 한답니다 또한 소고기를 대신하야 양료리에도 사용할수잇스며 말려서 포를 만들수도 잇습니다 개고리는 접질과 내장 발톱을 제하고는 전부를 다 먹을수잇스나 그중에 뒤ㅅ다리가 데일이 맛잇다 합니다 (끗)



童話 밀밧헤 모추라기 (一)

녯날에 엇던 모추라기가 밀이 아즉 커다케 자라지 못한 어린 밀밧 사히에 둥지를 지엇습니다 다 이 모추라기는 다른새나 즘생들처럼 밧게 나가 놀지도 아니하고 다만 둥지속에 드러만 처서 색기를 잘 길으고 잇섯슴니다 어느듯 밀은 자라서 둥지를 둘러싸고 누러케 익엇습니다 장차 버힐 날이 머지 안엇것마는 모추라기 색기는 둥지를 떠나 날러갈 만큼 자라지 못하얏슴니다 모추라기는 하로라도 얼른 색기를 더 자라게 하라고 날마다 먹을것을 주으려 날러다니기 시작하엿습니다 어떤날 모추라기는 색기들을 보고 『내가 업슬때에 이 밧님자가 아들을 다리고 오거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잘 들어두어라 그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다른곳으로 옴겨가야 하겟다』 하고 먹을것을 주으러 어데로 날러갓습니다 마츰 그때에 밧님자는 아들들을 다리고 왓습니다 밧님자는 아들들을 향하야 『밀이 벌서 익엇스니 너는 지금 너희 동무네 집으로 가서 래일 아츰 일즉이 밀을 비히러 와주기를 좀 비어달라고 일르고 오너라』 하고 두사람은 도라갓습니다 그들이 도라간지 조곰 후에 모추라기가 둥지로 날러왓습니다 그 보즉 색기들이 모다 근심하는 빗으로 얼골을 찡그리고 잇섯슴니다 그중에 색기 한마리는 어미를 보고 『엄마 밧님자가 아들들 다리고 와서 무어라고』 한 이야기를 말하엿승니다 어미는 그 말을 듯고 『응 밧님자가 그리고만 갓서 그러하면 우리가 그러케 급히 굴것업다 내일 그들이 또 나와서 무어라 말하나 잘 들어보아라 그다지 걱정할것 업스니 모이나 만히 먹고 어서 자자』 하고 말하엿습니다 모추라기들은 모이를 잔뜩 먹고 그날밤을 평안히 잣습니다 그 이튼날 아츰에 밧님자와 그 아들들의 동모들은 한사람도 밀을 버히러 오지 안엇고 모추라기는 권과가티 모이를 주으려 날러갓습니다 조곰잇다가 밧님자는 밧으로 나와서 여기저기 둘너보면서 『남이라는것은 밋을수업서 일가집에 가서 내일 밤을 버히러 이니와서 좀 가티 버히자고 그래라』 『계제안타』 모추라기가 말한바와 가티 그 이튼날 아츰에 일가집에서 아모도 밀을 비러오지 안엇승니다 밧님자가 그 아들을 다리고 밧을 보러나온즉 역시 어제와 가티 왓습니다 『아이그 모든것이 다 내 잘못이다 자긔외에야 밋을사람이 어대잇나 그저 제일은 제가하여야 되겟다 아지 내일은 우리가 낫을 가지고 나와서 버히자』 하고 말하엿승니다 모추라기는 이 말을 듯고 『이제야말로 우리가 옴겨가야 겟다』 하며 색기들을 다리고 정든 둥지를 떠나 다른곳으로 날러갓다 합니다 (끗)

신랑신부

리한식(李漢植)(三二)군과 리혜산(李惠山)(二九)양의 결혼식을 지난 륙일 하오 네시에 정동 례배당에서 거행

여름과학
배멀미예방법 (九)

배를타고 멀리 려행하려면 누구나 자연 멀미를 하게됩니다 그중에도 특별히 더 몹시하는 사람이 잇스니 대개는 소화괴 또는 위가 약한사람이나 신경질인 사람이 흔히 이러한 소질을 가졋습니다

◇괴로운 배멀미를 미리 예방하랴면 배가 온데서는 될수로 술이나 담배를 먹지말고 부스음식이 더 지 과식지말며 몸을 바르게하고 가만이 안거나 드러누어잇슬것이 올시다

◇또한가지 예방법으로 중추신경(中樞神經)을 안정식히기 위하야 진정제(鎭靜劑)를 사용할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부작용(副作用)을 하지 안는것으로 선택하여야 할지니 그 복약할 분량은 『부로무랄』이면 ○•三瓦 『요쇼랄』으로부터 ○•五瓦 『요쇼랄』이 적당합니다 너무 만히 먹어도 도로혀 속이 메시거웁고 토하기 쉬웁니다

◇ 우미관의 독자 우대권은 란외에 ◇

멍텅구리
급자작자 (53)
사직청원

(一) 서장에게 사직청원을 제출하다가 (二) 예전의 신분이 탄로가되야 (三) 눈이 싸지게 호령만 듯고 (四) 면직을 당하고 돌어서는 멍텅이

藝苑

金剛禮讚 (六)
白雲香徒

多寶塔

◇山을 形容하는말에 玉筍이라는것이 잇거니와 이말이 가장 適切하기는 아마 百塔洞의 塔林들일것임니다 들어가면서 白玉을 묵거세운듯한 處處의 立石林은 山全體가 立石林인 金剛山에서도 特히 一種神秘한 感興을 쇠어냄니다 『이것이 도모지 天의 供養인 塔이거니』 하는 宗教的 情調가 加味되는 外에 닭이 겟지오

◇瀑布又瀑布 石段又石段 이로 逶迤하기 어려운 泉石美는 가지록 사람의 마음을 어둡니다 그리다가 瀑布가 가장 다붓고 石段이 가장 엉도리켜 奇勝中에 奇勝을 빌운한 목쟁이를 지나가면 門塔보다도 規模制作이 훨신 크고 공교스러운 一雙大自然塔을 맛남니다 잇기를 헤치면 證明塔이란 刻石이 드러남니다 아모리 보아도 커질로 생겻다고 할수업는 솜씨잇는 塔입니다

◇이쯤서 四方을 둘러보면 여긔도 한누덕이 저긔도 한떨기 눈에 뛰우는것이 도모지 塔林인데 形體의 差等과 意匠의 變化가 天巧 아니고는 저리 豊富할수업슬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 도 阿育王의 八萬四千塔이 塔마다 樣式을 달리하얏슬시라도 塔으로 만들수잇는 金樣式을 회모리한 여긔 저 본새를 다 쉬보지 못하엿슬것입니다

◇빽빽한 香樹林을 쉬고 다시 더듬어 들어가면 百塔洞이 거의 맛닷는곳에 시방까지의 다른 塔들은 아모것도 아니라 하는듯한 놀라운 一巨塔이 둥그러케 山이 둥린 골바다에 구름을 찔러보기 조케 소삿승을 봅니다 조각을 쎄어도 고르게 쎄고 귀를 마처도 잰지러지게 마치고 가늠을 뛰워도 알마지게 뛰워서 均衡과 調和에 쐭 맞이업시된 莊重與嚴한 五層巨塔입니다 다 그 綜 그 按排 그 表現된 精神 오직 가륵할 뿐 놀라울 뿐입니다 風雨의 藝術的 技巧도 여긔 이르러서는 너무 深刻함이 도리혀 밉습니다

◇塔의 北面下隅에 多寶塔 三字를 大書深刻하야잇승니다 多寶塔이라 함은 例의 法華의 妙理를 說하실 때에 聽衆에게 俳說의 眞實을 證明하기 위하야 地下로서 湧現하는 多寶如來의 全身舍利를 奉安한 塔이니 多寶塔 즉 그 湧現하는 目的으로 일커르면 證明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방 百塔洞에 證明과 多寶가 둘다 난호인것은 孟浪한 일입니다 城壁 문허진데가 튼 後面으로 쭉하야 絶頂으로 올라가 보면 먼저것은 白鶴의 圓舞 갓고 갓가운것은 紫峰의 簇擁가튼 塔林이 一段의 光輝를 發하야 奇觀이 이를 길업습니다

◇생기기부터 凡常치 아니한 이 立石들은 실상 凡常치 아니한 歷史의 所有者들입니다 『선돌』을 造化의 방맹이로 觀念한 古神道가 이모든 偉大한 『선돌』을 神體로 崇仰하얏슬것은 용이히 짐작할일이니 佛教에서 塔이라하야 神聖한 쯧을 부칠도 실상은 傳統的 信仰을 물려가짐일 따름일것입니다 百塔(혹 白塔)은 宗(으로쓰든)의 百도 더 개數의 表示가 아니라 본대 『박』의 對字로 百塔 = 붉달 = 神岳일것은 짐작할 가합니다

落花 (락화)

一六○ 바란 번역

『운삼이가 무엇이라하며 욕하엿승닛가?』 하고 부장은 물엇다

『간나라고 하며 모욕을 하엿승니다 내가 보호하고잇는 계집에게를 누구의 허락으로 들어왓느냐 돈을 훔치는 도적가튼 년 그대로 용서하고 노아주겟지만 계집도적은 용서할수가 업다 그런부터도 종종 오는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좀 경을 켜노라고 기다리고 잇섯다 이와가른 소리를 하며 나의 멱살을 잡고 잡아채라고 하엿승니다』

도선생은 또 『홍운삼이는 청소마가 종종 드나드는것을 보고 그것을 죤길이와 한사람인줄로 알은것이다 올치 올치 하녀가 청소마를 챠주기 위하야 운삼이로 하야금 그리케 알도록 맨들어 논것이다』 하고 입을 열엇다

『나는 그에게 커피구석까지 질질 끌려갓승니다 끌려가서 겨우 발을 단단히 되되고 그를 떠다밀엇습니다, 한즉 그는 더욱히 달려부트며 이놈 간부놈이 내게 반항을 해 하고 무례한 소리를 하면서 그는 나를 잡아 쓰러고 나는 그를 떠다밀고 하엿승니다 이러하다가 그는 돌연히 나의 쌈을 벼락과 가티 갈겻승니다 나는 더 참을수가 업시 되야 나도 또한 주먹으로 그의 볼통이를 쌔여 저라하고 박아주엇승니다, 한즉 그는 그 엽헤 잇던 의자를 들고 달려들엇승니다 나는 또 엽헤 엇던 단장을 걱구로 잡고 아모데나 함부로 쳣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단장이 그의 바른데에를 마첫는지 캑하고 그는 쓰러졋승니다』 하고 그때의 무서움을 다시 늣기는듯이 죤길이는 몸을 떨엇다

얼마후에 그는 다시 말을 이어서 『운삼이가 쓰러지는 바람에 나는 엄적을 놀래서 안아일으키라고 하엿스나 그는 벌서 나를 내노코는 이 멀건하야 숨이 끈쳣승니다 이것이야 단낫다 죽이라고 한것은 아닌데 하고 후회하나 쓸데업섯승니다 너무나 뜻밧게 일에 나는 정신업시 층대를 나려와서 뒤도 도라보지 안코 도망질을 첫승니다』

부장은 급히 물엇다 『무어 숙자에게 아모말도 업시 도망햇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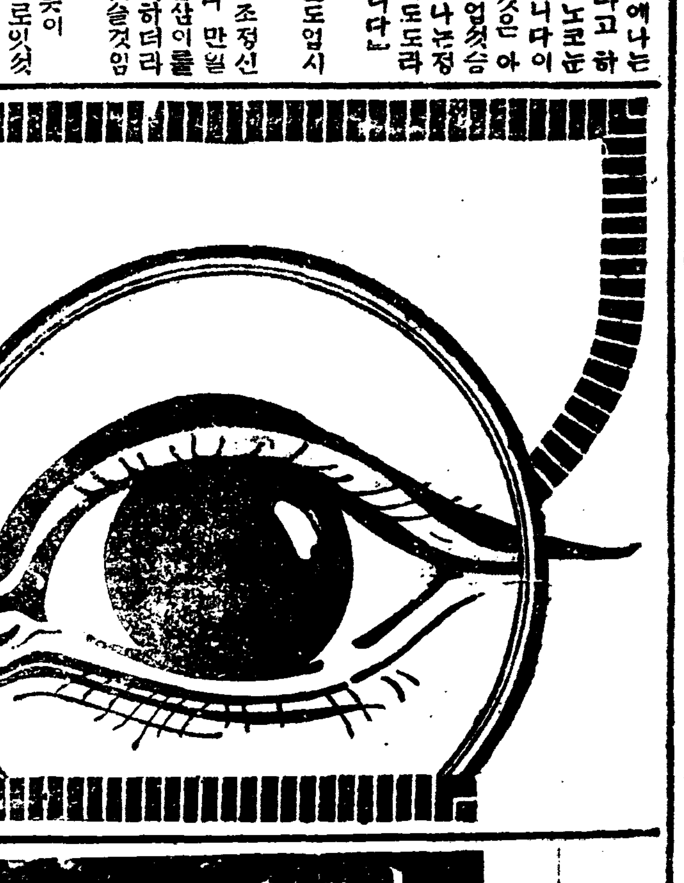
『네 지금 생각하면 아조 정신이 뒤집히엇던 모양입니다 만일 도망을 아니하엿더면 운삼이를 죽인 죄는 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숙자를 구할수는 잇섯슬것입니다』

로선생은 깁히 늣기는듯이 『그러치 그래 네가 그대로 잇섯더면 반드시 숙자는 안죽엇슬것이다 생각한즉 숙자는 네가 도망한후에 다만 혼자서 엇절줄을 몰으다가 네가 다시 오지나 안는가 하고 화투를 쇠내서 패를 떼여본것이다 그럴때에 청소마가 와서 다시 달래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하다가 종내 듯지아니하닛가 화투사장을 집어서 숙자의 가슴에 대이고 찔른것이다』

『내가 밧그로 나가갓슬때에 마츰 눈이 오기 시작하엿는데 나는 그것도 상관업시 줄다름질을 처서 방향도 업시 한부로 헤매다가 마츰내는 긔진하야 쓰러젓승니다 내가 그날밤에 입엇던 옷을 보더라도 그것은 알것입니다 얼마후에 다시 일어나기는 일어낫스나 힘이 하나도 업시 휘둥휘둥하면서 집으로 가서 문을 두다린것은 열두시가 지나서 한시쯤이나 되엇스리라 합니다 즉시 이불속으로 들어가기는 하엿스나 작구 겁만나서 날이 밝을때까지 잘수가 업섯습니다 그 이튼날은 일요일이엇슴으로 억지로 얼골빗을 태연하게 하여가지고 부친에게로 갓승니다 자아 혼인날을 당하느니 박씨집에 보낼것을 사주느니 하고 부친께서 즐거운듯이 말숨하는것이 나에게는 일일히 가슴에 쇠못을 박는것가탓승니다 그다음에 가티 박씨의 집으로 갓는데 련자의 압헤서 그전과 가티 이야기하고 웃고 한든 그때의 고통은 지금 생각하여도 땀이 남니다 이에 비하면 사형은 도로혀 낫승니다 물론 이날은 아즉 아모것도 신문에 나지 안엇고 나도 숙자가 죽은줄을 몰랏스닛가 그의 처디를 생각하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엇더케 하엿나 하고 그대로 잇겟지 하면 얼마나 고통을 바든가 하고 생각한즉 그 시례가 떤임업시 눈압헤 보이엇승니다 아! 내가 내손으로 사람을 죽이고서 숙자에게 그가튼 고통을 주며 몰으는데 하고 잇는것은 너무 비굴하다 하고 나는 생각하얏승니다 그래서 세상업서도 다시한번 차저가서 숙자를 구해주지안흐면 안되겟다 고생하엿승니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溫度 九日正午 八一、六
◇比較 八日最高 七六、一
◇日出前五時四三 晝間十三時一四
◇日入後七時三三 夜間十時四九

大學目藥 (대학목약)



大學目藥은 도라홈、돌림眼疾、썩썩한눈、星目、打撲目、흐린눈、삼눈、血眼、其他眼疾一切에 効力이 第一이오

十歲以下는 小兒用大學目藥이 잇소

參天堂合資會社 大阪市北濱

新女性 八月號 大好評

◇女子斷髮號 ◎ 暑中學生號!

女學生諸君에게 啓蒙運動에 着眼하라 (本誌記者) ……許貞琡

在京女學生과 歸鄕女學生에게 (一大鍵話!) ……朴達成

◇歸鄕하는 女學生諸君의 抱負와 經綸

女子도 斷髮함이 如何?

◆우리男子들의 머리깍든 由來를 드러 一千萬女子의 心機一轉을 促함……金起田

斷髮은 조타……梨花 曹正煥
能率을 놉힌다……同德 趙東植
個人趣味대로……淑明 山野
낫분일은 아님……培花 金允經
風俗이 된다면……女高 高木
一般이 贊成하면……進明 小杉
斷髮은 卽解放……金東理士
斷髮을 主張함……朱世竹
斷髮은 輕快!……申알베트
各自趣味대로……金俊淵
斷髮도 風俗……朴勝喆
美觀으로 조타……安碩柱

◆斷髮前과 斷髮後의 나의 感想……S生

◆우리가 상투를 싹든 그새……李商在

녀름特別讀物

◎갈새수풀에 울든 녀름……S K
◎三年前 녀름……環淑
◎追憶! 녀름의 追憶……梁柱東
◎녀름의 하로……懷月
◎悔恨의 祈禱……스카이
◎月夜 (小說)……懷山
◎로헨그린 (小說)……江風

◇男女의 生理及心理的 素質의 差異點……研究生
◇나의 盲學校生活……(露西亞人) 에로센코
◇婦女園遊會記와 女子界의 이消息저消息……一記者

讀者又는 全朝鮮을 淸革할 斷言 한다

發行 京城 開闢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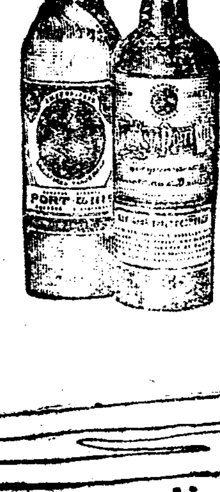
定價 金參拾錢 要先金 振替京城八壹六〇番 • 電話光化門四貳番

赤玉ポートワイン

疲困한 새에 일을 맛친 새에 한잔먹는 赤玉은 健康의 父가 되며 幸福의 母가 된다

美味 滋養 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적옥포도주



身體를 强壯케하는 葡萄酒는 赤玉

525

不正衡器의 被害者가 續出

사십번달어팔은결과 이곽사백몬메가흠축 安東商界에輿論沸騰

경북안동군(慶北安東郡)에서는 야마주(山)출장소(出張所) 부정형긔(不正衡器) 사용문데로 일반사회의 여론이 비등하다함은 이미보도 하엿거니와 요사이 또피해자(被害者)가 나타낫다는데 피해자는 경북봉화군내성면(慶北奉化郡乃城面)에잇는실업가 리종락(李鍾洛)이라는 사람인데 리씨는 고치(繭)천여관을시가 일백팔십원가량을 축을낸것인바 당디에서모다 사십번을달어서 팔엇슴으로 매번에북십몬메식 축난것이 판명되얏다더라(안동)

德積北里 大繁昌

堀業島全滅後로

어선이모혀들어서 인천(仁川)근해(近海)의일대어장으로 굴지하는 부천(富川)군 덕적면(德積面)굴업도(堀業島)는재작년 구월폭풍우에 참혹하게도 전멸이되야 작년어긔(漁期)에는 어선한척도들어가지안키때문에 한때번창하든 굴업도는한산하고 쓸쓸하게 되엿섯다 그래서 경긔도 수산회(水産會)와부천군청으로서는 위험시하는굴업도에는 도저히 계속할수업슴으로 천긔어장 문데는숙데가되야 오든바 작년부터그부근 덕적면북리(北里)에다가어장을 신설하엿다는데 그곳으로 부터온사람의 말을듯건데 그부근바다는 민어(民魚)가 만히생산되는곳이며 어긔(漁期)는 매개칠월중순부터 약삼개월 간인데벌서부터 모이여 드는어선이일백칠팔십척에 달할뿐안이라 이로부터 들어올배가 수십척이나되다하며 이어긔를 따라서북리로모이는사람이 천여명에달하고또 신설가옥이 륙십여호나 되야날로번창하여진다는바 조고마한섬한편에잇는궁벽한북리는인천근해의 중심되는 장래유망한 어업디가되리라더라(인천)

難産을悲觀하야 孕婦가投水自殺

사알동안이나고통을하다가 산파나의사를불으지못하고 醫療機關이업는까닭

전북고창군 흥덕면신덕리 목우촌오관석(全北高敞郡興德面新德里牧牛村吳判錫)의안해 김씨(三二)는 지난초하루날에 어린아이를배속에 담은채로 그동리압내물에빠저 죽은일이 잇다는데 해산긔미가잇서 배를부여쥐고 고통을 당하다가 나흘되든날에 그와가티 비관자살한것인바 그남편은 궁촌출신이라 몽매하야 의사와 산파의수술을 밧지아니한결과로 이러한일이 생겻다고 일반은 애석히 녀긴다더라(줄포)

人妻와逃走한 日警部補

평양에서잡혓다

선천경찰서(宣川警察署)경부보(警部補)며과다준길(大波多俊吉)(三九)은차련관주재소장(車輦館駐在所長)이되야 전근되는이는날로선천읍내(宣川邑內)실업가(實業家)림민랑(林敏郞)의안해『림가쓰에』와가티도망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그후본부되는림민랑(林敏郞)은수색원을데출하야 각디 경찰에서는경계선을느리이고 엄밀히 활동하든중인바평양부내(平壤府內)긔성려관(箕城旅館)에두남녀가류하는것을 지난륙일에 평양경찰서형사가 데포하야 지난칠일아츰에뎡주검사국(定州檢事局)으로압송되엿다더라(선천)

沐浴하다가 十歲小兒溺死

안동풍산면에서

경북안동군 풍산면수동(慶北安東郡豊山面水洞) 김학이(金鶴伊)의장남룡바위(龍岩)(一〇)은 지난륙일오전십일시에부모가일하러간 틈을타서 암내물에목욕하러갓다가 물결에 밀리여무참이죽엇다는데 시톄는 곳차젓다더라(풍산)

四口一時自殺은 蓄妾이原因

날마다가뎡풍파가잇다가 어린자녀를달고물속으로 戒愼할不可活의自作孽

평남순천군선소면 간동리(平南順川郡仙沼面間洞里) 이백팔십오번디 최명순(崔明淳)(五九)과그의안해 조씨(趙氏)(三九) 두사람은 자긔의맛아들 최상원(崔相元)(二)과맛딸최복희(崔福姬)(九)두명을 다리고 지난이월오전여섯시경에 천긔동리에 잇는대동강지류 구류리천(九流里川)에비사람이일시에 자살을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어니와 원인을 엄아보건데 천긔최명순은그안해 조씨몸에 아들이업는것을 구실로삼아가지고 수년전에첩(妾)을어더 이래 두집살림을경영하여 오든중 그본처몸에서마침 일남일녀를 나헛스나 최명순은 축첩생활을 그대로계속함으로 자연히 가정의 불화가 끈일날이 업게된결과 세상을비관하고『차라리모다 일생을단념하자』는결심으로 그가튼참극을 연출하게까지 이른것 이라더라(평양)

양잿물을 모파수로알고

마시고중독되야 생명이위독하다

선천군선천면천북동(宣川郡宣川面川北洞)조봉화(趙鳳花)의술집에 고용으로잇는 오십칠세(五十七歲)의로총각(老總角)정학민(鄭學敏)은지난칠일오후열한시경에 주인집 부엌에드러가『파인양물』통에 풀어 너허둔양잿물을 마시고 중독이되야의사를 청하야응급치료를하는등 일대소동을 이르키엿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들으면 전긔정학민은 나히가오십여세나 되도록아직장가도 못가보고 의지할곳도업는 최근생활로 이곳저곳을 술집고용으로호구(糊口)한일생을 의탁하여오든터인데 그날도마츰 손이만히와서 술을먹으며여러가지 주효를차려노코 먹는고로자연주정(酒酊)든식욕(食慾)이생기여 주인의눈을 엿보아가며부엌에드러가『파인앳플』통을들어마시엿든바 불행히 양잿물을너헛든것이엿슴으로그만중독이되야수산의원(守山醫院)의사를청하야응급수당을하엿는바원체만히먹엇슴으로 생명이 위독하다더라(선천)

儆新學校 紛糾繼續

면직된교원은 도당국에질문

황해도신천읍(黃海道信川邑)경신학교(儆信學校)분규사건에대하야서는 그보한바와갓거니와 일반이 주목하고 우려하는중에서 지난삼일에 그학교내에서리사회를열고 아래와가튼 교원측의 질문에대한 답변이잇섯는바 질문서와 결의서의 내용은아래와갓다더라

◇질 문

본인등은 리사회에 좌긔각항을 질문하야 십시간이내로이에대한 상당한답변을 요구함

一、소위합격증이잇다업다하는말로써 금번에 본인등을면직에처한 리유를밝히 대답할일

二、귀리사회에서주장하는교원자격이잇고업는것은 막론하고 하여간귀학교로부터 도당국에 신청하야 인가를어든교원들인즉 이제돌연히 면직케된 본인들은 무엇보담도 본인등의 생활에 지장이잇슬터이니 금후로부터 본인들이다른곳에 취직할때까지의 생활비를담보할일

◇결 의

一、본인등은차사건의진상을사회에호소할일

二、학부형에게와군당국도당국에진정할일

이상에 질문조항에대한 답변을할 리사회의회원되는이는 모다목사 장로교원등 제직들인바그답변이 무엇보담도 교원측의신경을 흥분케하는바는 한가지문데에 대하여서도 리사측의답변이통일치 못하고 심지어리사간에서도 잘햇다못햇다하고 일대분쟁이잇서 제각기 호언첩출으로 그도원만이 되지못하고헤여젓다는바 그후세교원은 장문(長文)의 진정서(陳情書)를 일반학부형에게 데출하엿다는데이번이사건에 대하여는 학부형가티일반은 매단히 주목하는중이라더라(신천)

青年自殺未遂

세상을비관하야

지난일일오후열시경에 전남보성군벌교면칠동리최계진(寶城郡筏橋面七洞里崔桂鎭)(三一)은 쥐잡는약을먹고 비관자살코저하엿스나 응급치료한 결과생명에는관계업다더라(벌교)

本妻를蹴殺

가해자는취조중

안변군위익면신대리 고긔룡(安邊郡衛益面新垈里高起龍)(三〇)은 무직업자로항상 술만먹고지내든바 지난칠월삼십일에도 술을먹고자긔안해장긔운(張起雲)(三〇)을무수란타하야 견데지못하야 피하여나가는 안해를 발길로차서넘히 쓰자나되는곳에서 떠러저 지난칠일오전네시경에 무참히죽엇다는데안변경찰서에서는현장에 급행하야사톄를 검사하고 가해자를데포하야 목하엄중취됴중이라더라

慘禍의同胞를爲하야

光陽서熱誠活動

全南光陽에잇는各新聞支分局에서는今般水害罹災同胞를救濟코저水害救濟會를組織하고四隊에分하야救濟金을募集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水害救濟會常務執行委員朴準澤、金榮斗兩氏는津月、多鴨等地에서着手하야爲先募集한救濟金과同情者의芳名은如左하다더라

鄭鎭祚一圓 宋春洪三圓 許鄭奎 安炯根 金景化 朴仁圭 金學慶各一圓 崔漢奎金二圓 李康悅十圓 金鍾烈 宋秉宇各一圓 李源生三圓 鄭旭彩 金東益 鄭道甲 朴基鉉 朴相來 高光燮各一圓 金洪各一圓 具興默二圓 姜周容洙十圓 金容仁 金宅坤各二圓 金永德一圓 計五十圓(光陽)

廣州에救濟會

廣州郡에서는郡守全興文氏와民間有志石東均外諸氏가今番水害地를復舊코자水害罹災民을救護하며水害罹災民救濟會를組織하고各罹災民을收容한다더라

罪囚激增

生活難으로

晉州刑務所의現狀

釜山刑務所晉州支所에서는去五日現在囚徒卽受刑者男二百九人女二人刑事被告人男三十九人女三人勞役場留置男七人乳兒男一人女一人合計二百六十二人이라는데此를前年同期卽男二百三十六人女四人合計二百四十人에比하면男二十八人女二人合計二十二人이增加되얏다는바其原因은다生活難으로因함이라더라(晉州)

衡平學友巡講

各地를巡廻할터

八月四日大田에서開催한衡平學友會懇親會에서社員子弟의向學熱을鼓吹키爲하야巡回學團을組織하야第一隊로李先同、白哲洙、李東煥三人이다음日割及場所에巡回하리라더라

八月九日江景 十日裡里 十一日全州 十二日高山 十三日錦山 十四日茂朱 十五日龍潭 十六日任實 十七日南原 十八日淳昌 十九日潭陽 二十日井邑 二十一日泰仁 二十二日龍北 二十三日金堤 二十四日群山

全朝鮮衡平 學友大會

去四日大田에서

去四日午後三時에忠南大田本町二丁目中尾公園에서全朝鮮衡平社學友大會를開催하얏는대衡平社中央總本部로부터張志弼、而笑、金相光三氏와各地支分社에서數十人의來賓이出席하엿스며大會를열기前에懇親會를열고張志弼、而笑、各地代表諸氏와當地大田우리青年會代表委員閔慶植氏의意味깁흔祝辭와各地로부터온祝電文祝詞朗讀이잇슨後紀念寫眞을撮影하고茶菓會로懇親會를맛치고同六時半에이어大會를開催하야經過報告、規則改定、其他事項等을討議하얏스며特히배움에주린衡平子弟를敎育하기爲하야勸學團을組織하야各地로巡回하기로決定하고時日、巡回地、各團員等은決定되는대로追後發表한다하며機關인同學友會를維持하기爲하야當席에出席한會員으로부터四十圓五十錢、鳥山學父兄五圓、笠場學父兄二十八圓、牙山學父兄十八圓五十錢、廣川學父兄五圓、大田分社二十一圓七十錢合計一百十八圓十錢의巨額을出捐하야機關인衡平學友會의

端川郡 郡民大會

두가지目的으로 來十五日에開催

咸南端川郡에서教育機關을만들고產業을振興키爲하야有志의發起로八月十五日부터當地學術講習所內에서全端川郡民大會를開催한다는데發起委員은如左하다더라

◇發起委員

金布務 金瑨律 崔秉珍 金洛鉉 許文煥 沈亨燮 崔昌煥 金國輔 金喜植 權炳熙(順序不同)(端川)

金泉面議員補選 有權者數發表

朝鮮人이二百餘人

金泉面協議員補缺選擧는本年九月五日에擧行한다함은旣報하엿거니와有權者名簿를作成發表한結果合計三百七十二人이오日本人이一百五十六人이라더라(金泉)

在京 開城學生의演劇

本報支局後援下에在京開城學生親睦會에서는今月二十五日에市內中央會館에서臨時總會를開하야會則의若干修正을行한後任員을改選한結果會長王昌業 總務金鍾綱 學藝部長金誠鎬 社交部長金敏鍾 運動部長韓孟鉉 經理部長宋亨淳 通學部長盧秉俊 以上과如히當選되얏스며且今般夏期를利用하야本報開城支局後援下에今月十一、十二兩日間에亘하야素人劇을行하리라는바藝題는如左하다고

一、金奐一의死 二、준주의설음 三、永劫의妻(開城)

同隣俱樂部巡講

定平新興咸興三郡에서日本東京에留學하는學生으로組織한同隣俱樂部에서는夏期休暇를利用하야生活에뒤진農村民衆에게萬一의效果라도주자는熱情으로地方巡講을한다는데演士는如左하다더라

一隊 李泰浩 朱基鎭 方致規 二隊 申鉉吉 韓鍾楫 權明範(咸興)

東部面救濟會組織

(松坡)

廣州郡東部面事務所에서는面長以下一般面職員과面內有志와協議한結果面內水害罹災民에게限하야救護코자水害罹災民救濟會를組織하고各罹災民을救濟한다더라

金泉救濟會

組織되자解散해

慶北金泉에서八個團體의聯合으로臨時水災救濟會를組織하엿다함은旣報하엿거니와義捐金을募集코자하얏스나當局에서禁止함으로去五日午後八時에金陵青年會館에서各發起團體代表가會合하야對議한結果救濟事業은各團體의單獨行爲로放任하고救濟會는卽時解散하엿다더라(金泉)

嘉尙한鐵城義塾

慶南固城郡會仙里에잇는鐵城義塾은去三十一日에開催된水災救濟音樂演奏會主催側의한團體이엿스나不得已한事情으로當席에來參치못하엿든바去二日에同義塾維持할基本金으로하고綱領과新委員氏名은如左하다하며大略況으로同十時에閉會하얏다더라

◇綱領

一、吾等은教育을受하야實生活의基本精神을培養함

一、吾等은相互親睦하야衡平의本意를實行하기를期함

一、委員氏名 庶務部委員李先同 教育部委員白哲洙 體育部委員朴好根 調查部委員李命福 外交部委員李鳳云 財務部委員吉漢同(大田)

洪原記者團

五日에發起會

咸南洪原邑內東亞朝鮮兩支局員들은去五日午後九時부터朝鮮日報支局에모히여洪原記者團을創立키로하고發起會를開催하고創立總會日時及準備委員과議案作成委員을左와如히決定하얏다더라

一、創立總會時日 八月九日午前十時

一、準備委員 韓永稷 朴河運

一、議案作成委員 吳洪燮 朴河運(洪原)

晉州物產共進會

殷盛을豫期하는

慶南晉州郡外十一郡聯合主催로來十一月晉州에서物產共進會를盛況히開催하리라함은累報와如하거니와前記郡廳에서는爾來準備事務에紛忙中이라는대今般馬山府에서도前記聯合에加入하야一府十二郡聯合共進會로範圍가擴張되얏슴은아니라他道에서도出品申込이連日到眼되야今秋共進會는豫期以上의殷盛을呈하리라더라(晉州)

釜山兩支局의 募集同情品

今番慶南地方의大洪水로慘酷한罹災同胞를爲하야時代、本報釜山支局의聯合으로不避風雨하고極力活動한結果多額한金品을募集하야慶南水害救濟會에依賴分配케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義捐人士의氏名은如左하다는데時急한關係上氏名을明記치못하야多少錯誤가不無한것은매우遺憾되는바이라하겟더라(釜山)

◇現金

任수길 金괴홍 李경련 彭진선 李환규 魚윤광 李금홍 尹氏 慶南醫院 鄭春鳳 鄭재룡 李윤상 李승우 李치완 며곽려관 海東旅館 洪찬정 金영진 광선양화뎜 金秋문수 宋석재 朴오겸 金용준 金적경 金봉숙 千그조 朴문식 吳중옥 金상원 金정수 金정린 黃경원 徐행근 徐병준 鄭괴선 金만규 金인도 尹정호 韓용화 金용주 朝日旅館 對陽旅館 공신상회 李장우 趙동규 韓성홍 鄭간모 金상수 朴병도 洪종화 柳임삼 金우용 小島 宋성득 曹치순 金국신 申수봉 成만희 金태일 無名氏 李약국 文봉관 姜성찬 金갑순 李홍복 梁성근 全홍수 金윤미 李종호 林성호 原田 米澤 田남오 金상현 辛수갑 韓봉준 高태준 具웃술 各一圓▲吳남근二十圓▲차승민 宋석윤 吳제동 陳재현 方영하 李춘파 金선오 동녀성 그 張영만 李규화 徐한수 金태홍 尹치광 孫영화 下條 志賀 李경화 盧순상 松谷 金영준 尹진오 金경서 姜우식 徐우근 李은조 梁홍술 金제원 上田組 丸二 具헌익 無名氏 大倉 半島旅館 雲集旅館 姜순며 梁며목 草梁亭 李명환 吳춘환 李용준 朴명선 朴수용 자리가지 고호부어 朴오근 李정우 쓰스미 姜며현 차근수 朴상용 李인약 朴무경 李춘장 金명숙 高城 姜인호 金조직 梁은득 金라득 金제원 河경용 各五순 無名氏各五圓▲崔순 姜청문 成경월 百濟病院 孔문교 各三圓▲金두옥 金영그 李용길 三益商會 鄭득봉 白오찬 各二圓▲吳학봉 一圓六十錢▲上田組一圓二十錢▲李칠호 一圓十錢▲蔣민 一圓九錢▲九福 六十五錢▲南일희六十錢▲李득건 金락명 南조사 金괴련 鄭약국 李직도 金경택 朴선중 金문엽 李재홍 金만갑 孔학규 金태수 林득구 崔만종 朴영만 李정도 吳명준 黃보조 李봉출 徐대식 李득만 金운서 崔한보 朴말선 無名氏 崔춘오 趙용운 李근오 張괴락 崔사옥 金순이 金익삼 金인애 內野 張문옥 河청도各二十錢▲梁제홍二十三錢▲韓경애 崔만청 姜상조 田봉익 安청달 尹영화 無名氏 金득룡 金태희 유며연 申상규 孫또만 朴임갑 無名氏 金정오 林갑권 李람수 元형윤 랙수 張만선 羅청배 沈명칠 姜상근 裵동현 孫차경용 李익선 李득오 朴이 李영권 李명도 金관돌 李서 無名氏 朴태식 林제봉 羅차식 張괴조 李영우 岡本 無名氏 金관식 朴제복 金각렬 無名氏 李경시 金명곤 松尾 白교윤 장연各十錢▲金부조 趙복술 金두원 朴준윤 李현익 趙종담 許작시 金석출 許찬 金상준各十錢▲崔연건 金현준 林乘 金석명 李회숙 金주락 金괴영 李순워各三十錢▲朴석복 安응수 郭계서各二十五錢▲申경화三十五錢▲李성준十五錢▲金수간 張상용 白연이各四十錢

計二百十五圓九十五錢

◇米穀

黃복흥一俵▲金리연 無名氏 各五升▲李춘옥 金성신 吳인규 淺谷 趙종호 秋녕유 朴수재 淺谷 直金 白일수 白순관各二升▲徐덕조四升▲관동상회三升▲河종식 李웃숙 鄭학괴 徐악이 金두룡 吉田 金경진 池재용 金경배 遠藤 金준식 李홍용 許봉수 金재오各一升

以上計一石二升

◇衣服

無名氏二百三十八件▲姜성문三十五件▲琵琶亭 金경문各十五件▲方사원十一件▲金순伊 朴원수 朴윤수 金웅진 岡屋各十件▲金회일 鄭봉진 金부주 花仙外四人各九件▲崔분준 차득입各八件▲姜배이 崔춘화 姬野 金복만 金득수 朴부진 朴만출 金경서 梁두삼 가쓰 金돌바우 張청환各五件▲차경환 韓당근 川邊各七件▲韓경서 金해근各六件 金약군 李근성 李희수 姜성옥 차두현 金정복 金청만 金우근 文막에 無名氏 辛관자 복희 金진태 無名氏 사구라 鄭향 金상건 徐청순 羅호청 金두섭 金수애 大邱집 朴복순 崔명달 鄭국선 李추해 朴봉순 徐명필 吳상춘 鄭인식 김남이 金명련 朴병수 李영춘 金부한 金유진 李홍용 金봇돌 金상괴 三共組 許상식 李의주 兪일근 鄭두식 李인면 李종만 李소득 李주수 淺谷 岩崎 尹홍규 安藤 都음건 勝福 無名氏 小吉 吳복만 梁며목 草梁亭 川上 牙山 金란옥 鄭옥희 金명근 裵며리 도쓰비 醫子 仙太郞 崔유선 李괴순 橫竹 월중청 옥선 월선 문갑 黃봉이 裵명이 宋청이 金꿀목비 金칠봉 쓰스미 金두선 金바우 大石이새기 金새진 小松 崔향난 계옥 李춘선 王경일 李괴홍 金득수 金규식 朴괴옥 朴용건 李상순 裵종한 李성우 金용옥 金선이 崔만연 李화일各一件▲孫태익 金만수 金득수 河종식 鄭명자 李해수 丁학규 朴성수 安명규 梁수여 張문준 姜상순 金성원 崔중근 秋제선 韓복득 金용수 趙창정 李우선 井上 尹병수 朴정길 金병연 金동진 崔상호 朴석복 尹氏 朴복동 金두여 李상만 金득삼 金창수 金영내 申청치 白만이 許봉수 金석윤 沈氏 文상석 金복득 金생길 金경오 金구주 韓용화 徐수조 金성태 朝日旅館 金영달 禹수그 미새기 綠町診斷所 松家初子 井國鉉 李상린 鶴屋 金또술 閔경식 金유옥 徐며식 姜봉익 鄭인춘 鄭순남 金영수 藤家 河송월 若松 達城館 禰서원 文갑이 崔동진 李청연 李석봉 李동진 張만선 金종화 張괴락 李복순 河경용 金행은 李하득 崔만경 張문옥 金경애 李명득 車선숙各二件 文상수 관동상회 無名氏 秋문수 一新旅館 鄭인수 金봉순 盧순상 金정해 姜복선 兪세찬 李봉출 崔만석 金춘자 金춘연 金근용 金성출 徐운건 朴복득 차남서 羅영희 순홍려관 영홍려관 蔚山旅館 金상주 鄭유조 金영순 미두구亭 盧생원 無名氏 鄭괴순 李

佛教幼稚園美擧

保母의熱誠

釜山市內草梁洞東洋佛教堂에서經營하는幼稚園의保母諸氏는今般水災에對하야學父兄을訪問하고義捐金三十六圓六十錢을어더本報釜山支局에託付한바氏名과金額은如左하다

金秋儀 辛瑛奎各二圓 秋民淳 尹丙典 金二龍 廣濟號 李守富 辛美理亞 韓益蓮 朴鑛南 尹洪奎 崔信允 金鉄洪 金雄飾 尹理昊 鄭鳳燮 徐甲順 崔永寬 崔元沐 金鄭成 劉明玉 成昌玄 金奉李 金周漢 尹萬奎 李鍾道 浩 徐相顯 林喆鎬各一圓 李仁 朴敬瑞 李圭浩 宋萬奎 朴守鉉 李圭奉 聖三鉉 金小範 金點時 徐明洙各五十錢 金洪韶四十錢 金潤淑三十錢 李今玉 金元佑二十錢式(釜山)

高陽의大宣傳

本報高陽支局에서는今番水災로窮迫에빠진同胞를救濟하기爲하야特히高陽青年會와協力하야文字廣告를作成하야高陽郡內에宣布하야物品及金錢을募集한다는데누구든지뜨거운生覺으로救濟金品을만히보내주기를바란다더라(高陽)

難니에서夏休中임도不拘하고職員諸氏와生徒一同이會集하야今番水災로慘憺한同胞를同情하는誠金을募集하기爲하야同情金五十二圓五十八錢을收集하야本報同城支局에依托하엿스며또同夜學生徒一同은特히農耕夜學部에서夜學하는趣旨下에各自同情金一圓二十八錢을本報同城支局에依託하엿다더라(同城)

孔德里의救濟

洞內有志가多額同情

今番大洪水로市外孔德里에는破壞된家屋이九十餘戶인데이를時急히救濟키爲하야該里有志로부터아래와가튼同情金이잇섯다더라

吳周泳一百圓 金鳳協五十圓 朴昌周 金敎秉 協昌精米所各二十五圓 李仁德 崔豐鎬各二十圓 金順龍十圓 金成赤 朴仁秉 李昌宇 金昌鉉 崔仁煥 黃義貞各十圓 宋憲萬七圓 崔萬根六圓 李德稙 胡鍾業 李昌魯 蔡昌植 李光植 金東洙 申東秦 金昌憲 崔鍾熙各五圓 洪鳳植 朴稚祖 申明均 朴敎信各四圓 朴勝用 金明俊 田文在 金學西 禹鍾源 申伯均 姜惠來 張梁各三圓 崔承烈 曹德日 韓內叔 申在興 崔宋根 朴瀧培 李龍麟 卜鄭奎 具本成 高用直 白吉洪 李洲錫 崔台煥 李显雲 崔奉植 宋錦淑 殷寅燮 洪承尤 黃今派 金德順 崔斗鉉 全寬運 郭十萬 崔學西 朴召史 朴承煥各二圓 金元李 吳裕吉各一圓五十錢 李東煥 鄭鍾洙 崔東益 徐漢約 鄭世春 禹鍾實 朴元三 韓明錫 金應圭 鄭浚鎮 金顯翼 沈相國 任世錦 鄭元均 金奉岩 韓東珝 洪宰裕 李正植 金鍚周 朴昇煥 李潤培 朴性鉉 李泳夏 林浚權 鄭智永 姜鲁鳳 鄭有成 李宗九 尹相雲 李學年 裴禮華 李裕高 金昌植 李鍾九 李承雨 金弘起 安興福 李容圭 金鳳來 尹姓女 申明照 金鍾善 金敬俊 申琬均各一圓 金春培 張明煥 林聖根 朱義順 金相奎 辛明淳 金恒洙 李戰克 黃義彰各五十錢

合計 五百四十一圓五十錢

◇錦山音樂延期

旣報=全北錦山郡內에在한五個團體의聯合主催로全朝鮮水害救濟後援會…하고音樂大演奏會를六日(男)七日(女)은雨天임으로來十一日로延期하엿다더라(錦山)

東萊佛教少年 救濟音樂盛況

東萊佛教少年會主催와東萊佛教女子青年會 東萊青年會、東萊女子青年會、東萊佛教少女會 東萊達夜學校 東萊水害救濟會 本報東萊支局後援下에水害救濟音樂演奏會를二日間豫定으로去六日下午八時에東萊佛教布教堂에서開催하엿는데地方人士는慘憺한罹災民의慘狀을同情함과同時에同少年會員들의奇特한心情을크게讃揚하는마음으로大滿員을이루엇스며프로크람의進行을따라變하는曲目의微妙한旋律은場內를恍惚케하엿는바特히金末英秋錫童兩孃의自然스러운썬쓰와金桂年女史의淸雅한獨唱은滿場의人氣를모엇스며至誠의힘이라는少年들의童話劇으로盛況裡에同十一時半에閉會하엿는데初夜의義捐金과氏名은左와如하더라

東萊梵魚寺百圓 朴襲獸五圓、金今得 東萊地方學生一同各三圓 朴志源 崔必奉 楊柳鶯 吳成煥 韓鏡洪母親 金祥祐各二圓 尹相殷 朴彭月 崔松鄭 金桂卿 金南田 金東秀 姜興順 李寧姬 金鎭來 鄭宗漢 金貞五 禹乘允 無名氏 李根浩 禰相浩 崔貴涉 趙仁浩各一圓 朴東鎬 無名氏各五十錢 釜商東萊學生一同一圓六十錢 當夜入場料十九圓六十五錢(東萊)

◇博川邑教會募集

博川邑教會에서는去二日下午三時에同情金을第一回로募集하엿다더라(博川)

東萊救濟會組織

지난二十八日午後八時半에市外私立興英女學校內에서臨時議長金章煥氏司會로今番洪水로慘酷한災禍를當한東萊上下里土亭里方面罹災民을救濟하기爲하야東萊水害救濟會를組織한後다음과가티常務委員을選擧하고事務所를前東萊第一銀行支店에두고救濟策을講究하는同時에大大的으로活動하는中이라더라

委員長 金章煥 常務委員 金籌培 金泳圭 鄭炳基 曹璿承 朴祥來 高圭永(高陽)

傳染病豫防費補助

京城府傳染病豫防費로京畿道地方費에서一萬六十一圓三十錢을八月附補助되얏더라

◇寸鐵◇

◇【觀寧】邑內女子들은物件을살여면 으례히中國人商店으로多數히가는데 其女子들의하는말을드르면 中國人이허물이업서조라고한다나 朝鮮人보다더親하다는것은怪異

◇【揚平】龍門面馬龍里天主教神父孫聖載는 燒酒를密造하다가發覺取調되엿다는데 요사이某當局者에게 대대립하는것을보면 畢竟無罪運動을하는貌樣? 神父가昌皮를當하니神子는焦悶하겟지

◇【德川】鶩島面醫生徐某는同面場洞사람에게檢案料八圓에家屋文券을바덧다나 이것이日神農遺業?

◇【全州】全州大正町과豐南町一部의住民들은 新築한高等女學校뒤문으로 비가조금만오면前에업든水難을當한다고 日本人이利보는데는朝鮮人은번번히害만본다

全密陽男女懸賞討論大會

時日 八月十三日下午八時半
場所 西門內禮拜堂
申請期日 八月十二日外지東亞、朝鮮兩支局
參加資格 二十歲以下十五歲以上
演題 國家를興盛케하라면工業이냐商業이냐
主催 在京密陽留學生會
後援 東亞日報密陽支局 朝鮮日報密陽支局

西朝鮮個人庭球大會

競技時日 八月十六日(雨天順延)
申請期日 八月十五日外지
競技場所 順川中學校講習所코-트
申請場所 時代、朝鮮日報社順川支局
參加金 壹組金壹圓
抽籤日 八月十六日午前八時
主催 時代、朝鮮兩順川支局
後援 順勇匯順榮商店

六〇六號의 內服藥發見

横痃疳瘡鹽氣重症梅毒 보기좃케낫소

梅毒、下疳、横痃等의療法으로는現今카ー네六〇六號注射가第一有効한것으로專門家에서使用하나이것은病毒을體質等에依하야三回나四回나注射치아니하면안되는故로自然莫大한費用을要하며또한가지는自己一身으로秘密治療가不可能한故로遺憾으로生覺하얏斯界의先驅者米國醫學博士數十名專門諸氏와協力하야…本劑는六〇六號注射와同一한作用을體內에서能使하는故로如何한頑强惡性의病毒이라도撲滅하는最新良藥이요本劑는六〇六號와如히一號二號三號의三種이有하야藥의作用도漸漸强大하오니病者는左記容體에依하야自己에게適合한藥을服用하시요如斯히强藥이나他의作用이나害는絶對로無하고他藥과倂用하야도無妨함

(一期) 梅毒의一期는感染된지四五日을經過하면局部에粟粒大의硬結이生하고腫瘍이되오此時에完全한治療를밧지못하면外面에는治癒된듯하나實은不然하야病毒은體內에潜伏하야잇서二期나三期가되기쉬우니此時에徹底的으로治療치아니하면不可하오其治療法은發賣以來로多大한好評을博得한新藥으로서內服藥セーピン(세ー빈)一號를服用하야內部로부터完全한治療를하시요

(二期) 一期中에잘治療치아니하면病毒은全身에蔓延하야第二期症이表現치아니할지라도體內에潜伏하는等事이有하오尙히病勢가漸進하면腦神經痛이生起며外顏色이怪惡하고頭痛헌기증、記憶力減退、思考力無、憂鬱、腦困症又는リウマチス(關節風)와如히手足에關節과筋肉痛이生起고목과팔에멍우리가生起고咽喉와鼻孔에作用이不便하며耳鳴症毛髮이싸지며全身又는局部에腫氣가生起고大便不通과痔疾이되는等여러가지에症狀이顯出홈如此한二期에治療法은內服藥セーピン(세ー빈)二號를服用하야全身의病毒을撲滅하시요

(三期) 二期中에잘治療치아니하면病毒은漸漸蔓延되야第三期가됨니다此病狀은第二期의症狀을除한外他症狀은大同小異한容體나第二期보다도極惡하야卽毛髮이모다싸지고局部가腐敗하며全身에惡瘡과腫氣가生起고腦脊髓를侵害하야腦神經系를生起게하야所謂惡性腦梅毒이되고又는쥐치가되며發狂되는事가有하고뼈와살이腐敗하면코가써어저지고눈이써무러지는等種種의容體를現出홈上述한三期에治療法은內服藥セーピン(세ー빈)三號를服用하야全身에病毒을完全히治療하시요

(遺傳) 梅毒如此히危險한病魔나此病은潜伏時期가長久한關係로一般患者는輕率히生覺하오其中에도父母로부터遺傳된梅毒은潜伏時期가尤甚히長久하야梅毒으로鑑定키가어렵소然이나此遺傳性梅毒이出現할時는最初부터二期三期의症狀을現出홈此遺傳梅毒을비롯하야梅毒病에第一多有한症狀은腦經을侵害하야卽頭腦가낫부고、頭痛、현기증等殆히神經衰弱의症狀과恰似하야梅毒으로生覺하는患者가稀少하고如斯한病者가完全한治療를바드면効果에出現되는것이奇妙함이요

無代進呈 數津羽田兩先生合著梅毒의容體로부터治療法等을詳述한小冊子를今回一萬部限하야無代進呈홈 葉書로申請하시요

藥價 一號輕症用金五圓、二號重症用金拾圓、三號頑症用金貳拾圓、試用分金貳圓 何者이던지木箱封入密送홈送金은振替又는小爲替代金引換小包로도取扱홈

セーピン(세ー빈)은一號二號三號三種에分하야藥力은漸漸强大홈

京城支店及附屬醫院設置

大日本總發賣元 柴崎仁壽堂大藥房

京城支店 京城黃金町二丁目(電話本局一六六 振替京城一二五八〇)

東京本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

附屬醫院